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初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李 光 希

1998年 8月

濟州道 初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李 光 希



李光希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이 광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상대방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에 동감하면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가,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의 초등학생들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설문을 통한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 파악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있어서의 문제는 ① 민족공동체의식의 약화, ② 관념적인 차원에서 통일문제 인식, ③ 통일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합리주의적 경향, ④ 국가 안보의식의 약화, ⑤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 등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통일국가에 대한 확신과 미래상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통일은 긴 여정이고 미래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래문제로서 통일문제는 사라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더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문제의 제기 | 1 |
| 2. 연구목적과 방법 | 3 |
| 3. 선행연구의 검토 | 4 |
| II. 연구의 내용과 절차 | 5 |
| 1. 통일의식의 개념모형 | 5 |
| 2. 조사도구의 설정배경 및 조사도구 | 6 |
| 3. 표집 및 자료처리 | 13 |
| 4. 제한점 | 14 |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5 |
| 1.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민족관) | 15 |
| 2.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의식(통일관) | 24 |
| 3. 북한에 대한 현재적 인식(북한관) | 43 |
| 4. 국가 및 안보에 대한 의식(국가관) | 56 |
|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의식(미래관) | 66 |
| 6.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한 인식 | 84 |
| IV. 결 론 | 93 |
| 1. 논의의 요약 | 93 |
| 2.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 97 |
| 3. 제 언 | 99 |
| 참고문헌 | 102 |
| Abstract | 106 |
| 부 록 | 108 |

표 목 차

| | |
|---|----|
| 〈표 1〉 통일외식의 개념모형 | 5 |
| 〈표 2〉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 6 |
| 〈표 3〉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지도요소 | 7 |
| 〈표 4〉 조사도구의 영역별 문항구성 | 12 |
| 〈표 5〉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 13 |
| 〈표 6〉 남북한은 한 거래인가? | 17 |
| 〈표 7〉 북한과 미국의 운동경기 응원팀 | 18 |
| 〈표 8〉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 때의 태도 | 20 |
| 〈표 9〉 월드컵 축구대회 시합장소 북한 배정에 대한 견해 | 22 |
| 〈표 10〉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 24 |
| 〈표 11〉 분단의 원인 | 26 |
| 〈표 12〉 "통일"하면 떠오르는 산 | 27 |
| 〈표 13〉 통일의 당위성 | 29 |
| 〈표 14〉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 31 |
| 〈표 15〉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인가? | 33 |
| 〈표 16〉 통일의 장애요인 | 35 |
| 〈표 17〉 통일의 방법 | 38 |
| 〈표 18〉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 40 |
| 〈표 19〉 통일 노력의 주체 | 41 |
| 〈표 20〉 통일 글짓기의 주체 | 43 |
| 〈표 21〉 운동 경기시 북한 사람들의 응원팀 | 45 |
| 〈표 22〉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것 | 46 |
| 〈표 23〉 북한의 공식 명칭 | 48 |
| 〈표 24〉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 50 |
| 〈표 25〉 북한의 주민생활 수준 | 52 |
| 〈표 26〉 북한 경제의 침체원인 | 53 |
| 〈표 27〉 북한의 지도자 | 55 |
| 〈표 28〉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의 이유 | 57 |
| 〈표 29〉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통일 노력은 해야하는가? | 59 |
| 〈표 30〉 전쟁 발발시 태도 | 61 |

| | |
|---|----|
| 〈표 31〉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통일 노력 | 63 |
| 〈표 32〉 제주도와 통일 문제 | 65 |
| 〈표 33〉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인식 | 67 |
| 〈표 34〉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인식 | 69 |
| 〈표 35〉 통일 한국의 이념 | 71 |
| 〈표 36〉 통일후 남북한간 화합의 걸림돌 | 73 |
| 〈표 37〉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여부 | 75 |
| 〈표 38〉 남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여부 | 76 |
| 〈표 39〉 같은 반이 된 북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 78 |
| 〈표 40〉 통일비용의 감수 여부 | 80 |
| 〈표 41〉 통일 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은 해야 하는가? | 82 |
| 〈표 42〉 통일 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 | 83 |
| 〈표 43〉 평소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하는가? | 85 |
| 〈표 44〉 통일 및 북한 관련 매스컴 청취 정도 | 86 |
| 〈표 45〉 통일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원 | 88 |
| 〈표 46〉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 90 |
| 〈표 47〉 학교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인식 | 9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남북한은 한 겨레인가? | 16 |
| 〈그림 2〉 북한과 미국의 운동경기 응원팀 | 17 |
| 〈그림 3〉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 때의 태도 | 19 |
| 〈그림 4〉 월드컵 축구대회 시합장소 북한 배정에 대한 견해 | 21 |
| 〈그림 5〉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 23 |
| 〈그림 6〉 분단의 원인 | 26 |
| 〈그림 7〉 통일의 당위성 | 28 |
| 〈그림 8〉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 30 |
| 〈그림 9〉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인가? | 32 |
| 〈그림 10〉 통일의 장애요인 | 34 |
| 〈그림 11〉 통일의 방법 | 37 |
| 〈그림 12〉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 39 |
| 〈그림 13〉 통일 노력의 주체 | 41 |
| 〈그림 14〉 통일 글짓기의 주체 | 42 |
| 〈그림 15〉 운동 경기시 북한 사람들의 응원팀 | 44 |
| 〈그림 16〉 북한의 공식 명칭 | 47 |
| 〈그림 17〉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 49 |
| 〈그림 18〉 북한의 주민생활 수준 | 51 |
| 〈그림 19〉 북한 경제의 침체원인 | 53 |
| 〈그림 20〉 북한의 지도자 | 54 |
| 〈그림 21〉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의 이유 | 56 |
| 〈그림 22〉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통일 노력은 해야하는가? | 58 |
| 〈그림 23〉 전쟁 발발시 태도 | 60 |
| 〈그림 24〉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통일 노력 | 62 |
| 〈그림 25〉 제주도와 통일 문제 | 64 |
| 〈그림 26〉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인식 | 67 |
| 〈그림 27〉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인식 | 68 |
| 〈그림 28〉 통일 한국의 이념 | 70 |
| 〈그림 29〉 통일후 남북한간 화합의 걸림돌 | 72 |
| 〈그림 30〉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여부 | 74 |

| | |
|--|----|
| <그림 31> 남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여부 | 76 |
| <그림 32> 같은 반이 된 북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 77 |
| <그림 33> 통일비용의 감수 여부 | 79 |
| <그림 34> 통일 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은 해야 하는가? | 81 |
| <그림 35> 통일 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 | 83 |
| <그림 36> 평소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하는가? | 85 |
| <그림 37> 통일 및 북한 관련 마스크 청취 정도 | 86 |
| <그림 38> 통일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원 | 87 |
| <그림 39>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 89 |
| <그림 40> 학교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인식 | 91 |



I. 서론

1. 문제의 제기

1945년 남북한 분단 이후 서로 兩立하기 힘든 갈등적 대결구조 속에서 상호 단절된 생활을 영위해 온지 약 반세기가 흐른 오늘날, 남북한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異質的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적대적 대립 속의 민족분열과 상극현상을 심화시켜 남북 통일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통일은 민족의 최대 염원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며 사명으로서 꾸준히 강조되고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체험한 남북한 간에는 극복해야 할 분단의 골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남북통일문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통일은 긴 여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단과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정치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 우리에게 있어 통일이란, 국토와 국권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문화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통일, 국권통일, 국민통합과 더불어 민족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²⁾ 다시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까지도 융합되는 정신적 통합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 지리적 측면에서 분단은 단일생활권 지역의 국민이 분할된 것, 즉 국토분할을 의미하며, 통일은 분단 전의 국토 생활권 영역으로 단일화(통합)되는 것, 즉 국토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분단은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던 곳에 복수의 통치권이 존재하게 된 것, 즉 국권분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단일정권에 의한 한반도 통치, 즉 단일정부화를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단은 다른 체제속에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생활과 의식상의 분열에 의한 사회문화의 이질화, 즉 민족분열을 의미하며, 통일은 생활양식과 의식의 동질화, 즉 민족화합을 의미한다. 민병천, 『新統一論』(서울: 고려원, 1992), 11-14쪽; 윤건영,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VI):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통일원, 1995), 292쪽.

2) 윤건영, 위 논문, 같은쪽.

따라서 우리에게 통일은 긴 여정이고 미래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문제로서 남북통일문제는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통일의 새 역사를 통해 펼칠 통일승계세대로서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은 8·15해방이나 민족분단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로서 분단전 세대인 기성세대와는 달리 민족적 동질감과 민족문화의 공통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남북통일문제는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속에서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주의 풍조와 외래문화의 전래로 가치관이 혼란해짐에 따라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풍조에 휩쓸려 국가의식, 민족의식 및 통일의식이 희박해져 현재의 분단시대에 안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³⁾

결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북통일문제를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하여 바라보기 보다는 분단으로 빚어진 이산가족들만의 문제나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먼 미래의 초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다수의 청소년들 사이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자체의 성취 뿐만 아니라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에조차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통일에 대한 신념, 기대와 가능성, 의욕들이 약하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⁴⁾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그들 세대만의 단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과 관련있는 전체 국민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은 기존 사회구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자적이고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3) 강무섭, "통일대비 청소년의식 및 가치관확립의 문제," 『통일논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5), 115-116쪽.

4)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청소년(68.9%)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60.6%)들이 통일을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해 유보적인 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뚜렷한 主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45.4%) 또는 청소년세대(33.1%)를 통일의 主役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1992).

그러나 청소년들의 의식은 기성세대의 가치나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규정되고 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통일방안이나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들을 통일세대로 조직화하여 분단된 조국의 현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남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에 대한 주체적 인식능력과 실천적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이상에서처럼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상대방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에 동감하면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가,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구자가 처한 현재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일선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시절은 가치관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여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밝혀내고 그 대안적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경험적 방법론에 의거한다. 특히 설문을 통한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문헌연구도 같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들의 전반적 통일의식을 조사하여 '문제의 소재'를 일반화하려면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넓혀야 하지만, 여건상 제주도내로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선행연구로는, 1993년에 金姬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統一教育의 새方向 摸索과 關聯하여』이다. 이 논문에서 김희는 제주도내 국민학교 6학년 652명을 대상으로 통일의를 조사하였는데, 통일의식의 하부영역을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26개 개념으로 조사도구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일정부분은 김희의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의 후속연구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의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김희가 던졌던 질문을 5년이 지난 지금의 아동들에게 그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김희의 연구를 좀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는 통일의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3개 영역, 26개 개념으로만 국한함으로써 문제의식을 세분화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문제의 소재'를 구체화하는 데는 미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그의 연구는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미래적 인식(미래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밝히겠지만, 본 연구는 통일의식의 개념모형을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도구를 좀 더 분석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과 절차

1. 통일의식의 개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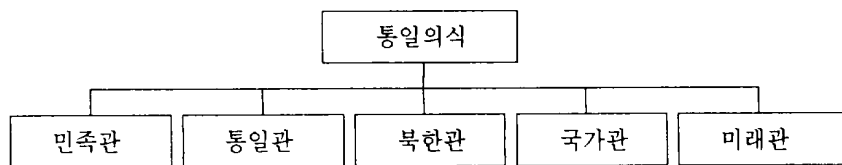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통일의식이란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제반 가치관이라 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5개의 하부영역, 즉 <민족관>,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 <미래관>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영역구분은 교육부의 『통일교육 지도자료』(1993), 통일원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1995)과 통일의식에 관한 기존연구 및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교육부의 『통일교육 지도자료』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도되어야 통일교육의 내용영역을 <분단의 현실>, <통일의 준비>, <통일이후의 대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원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서는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분단현실의 이해>, <통일여건의 인식>, <통일정책>, <통일준비> 등으로 내용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하부영역들은 통일의식을 구성하는 하위개념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의식 또는 통일관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박성희 등은 통일의식의 하부영역을 <통일관>, <북한관>, <남북청소년 교류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⁵⁾, 김희는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으로 나누고 있다.⁶⁾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의식의 개념모형을 간략히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통일의식의 개념모형



5) 박성희·박정선,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3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년 여름).

6) 김희,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8)

여기서 <민족관>은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이며, <통일관>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인식이다. <북한관>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적 인식이며, <국가관>은 국가 및 안보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미래관>은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미래적 인식을 뜻한다.

2. 조사도구의 설정배경 및 조사도구

1) 조사도구의 설정배경

이상과 같은 통일의식의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도구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배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통일교육의 교육현장적 배경, 둘째, 통일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이다.

가. 통일교육의 교육현장적 배경

이는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고려된 배경적 요인으로, 교육부의 『통일교육 지도자료』(1993)와 현행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요소들을 조사도구로 도출하려는 것이다.

먼저 『통일교육 지도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간략히 도표로 제시해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 구 분 | 통일 교육 내용 |
|-----------|---|
| 분단의 현실 | 가. 분단의 배경과 과정 나.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현실 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
| 통일의 준비 | 가. 통일의 당위성(필요성)과 의미 나.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 다. 남북한의 통일노력과 문제점 라. 통일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 통일 이후의 대비 | 가.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나. 통일국가 형성의 과정과 그 과제 다.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

위의 교육내용의 체계를 고려하여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지도 요소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도요소는 제6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도덕과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하여 추출한 것이다.⁷⁾

〈표 3〉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관련 지도요소

| 구 분 | 통일관련 지도요소 |
|--|--|
| <p style="text-align: center;">분단현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분단의 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와 6·25 0 양 체제의 비교 및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체제의 차이 - 북한의 현실 0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자랑 - 화합의 길 |
|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노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인도적 측면) - 통일의 의미 0 통일 여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 - 남·북관계의 변화 0 남·북한의 통일노력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입장 차이 - 우리의 통일노력 0 통일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에 대한 적극적 관심 - 통일논의에 대한 합리적 태도 |
|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 이후의 대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조국의 모습과 조건 0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한 노력 |

이상의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지도내용 요소는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7) 중앙교육심의회 이념분과위원회, 『국·중·고교의 통일교육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1992), 42-43쪽.

나. 통일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의 측면

먼저 통일의 국제적 환경은 주지하듯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은 종식되지 오래지만,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 분쟁의 씨앗들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러, 일·중, 중·러 등의 영토분쟁과 국경분쟁,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및 민족분쟁, 그리고 종교분쟁, 서방과 유럽의 추세와는 반대로 동북아지역에서는 군비증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⁸⁾ 그리고 한편으로 더 위협적인 것은 경제발전의 산물로서 예측되는 이 지역의 맹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질 일본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인데, 이로 인해 벌써부터 신냉전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신경전이 미·일과 중·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⁹⁾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예컨대 동북아에서도 유럽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같은 안보레짐이 구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체제에도 적극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도 동북아 다자간 안보레짐의 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다자간 안보 정책 구상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대북경수로 제공, 4자회담 개최, 국제사회 대북지원, IMF체제의 한국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돌발사태를 몰고올지 모르는 작금의 북한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정책은 '통일'보다는 '공존'을 선호하고 있으며¹¹⁾, 이처럼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열강의 발언과 입김 강화는 자칫 분단의 고정화를 나올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라는 결과가 설사 불가피하게 오는 것이라 할 지라도 한반도 문제

- 8) 김학준,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아시아-태평양의 장래," 『아시아 도서간 협력: 관광과 문화교류』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 1997.7.25), 4-6쪽.
- 9) 안영선,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의미," 『신아세아』 제3권 제2호(1997. 여름호), 3-7쪽.
- 10) 고성준·강근형,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연구논총』 제8집(1998) 참조.
- 11) 송영대,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97재외동포 초청세미나 자료(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1997.5.8-10), 기조연설 참조.

해결의 중심은 워싱턴이나 북경. 그리고 동경이 아닌 서울임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문제와 안보문제의 성격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통일관과 안보관을 갖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이다. 최근 북한을 위기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은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자원부족 현상이라 한다. 이미 더 이상 중앙정부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자원을 선별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자원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원공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층과 지방은 스스로 식량과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 이외에 생존수단이 없으므로 북한의 소외계층과 소외지방은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독자행동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餓死者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연장선상에서 한 때 북한의 조기붕괴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¹²⁾ 이제 는 단기간 내에 북한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실고 있다. 아직도 김정일을 지지하는 군부세력이 건재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기조로한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 연구에 의하면,¹³⁾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를 해 나가는 이유로 7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하면 첫째, 현재 북한정권이 겪고 있는 경제난 내지 굶주림 그 자체가 체제붕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후 한국이 미국의 잉여농산물법에 따른 식량지원으로 삶을 이어갈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 속에 있었으나 그 사실이 체제붕괴를 초래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단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은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북한을 돕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데올로기 국가로서 주민 모두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내지 세뇌되어 있어 체제 비판의식이 조직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사회는 이중삼중으로 감시와 통제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집단적 봉기나 반란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능력,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터

12) 북한의 조기붕괴론에 대해서는, 임춘용, "북한 붕괴 시나리오들", 『서울신문』(1996.9.18): 「조선일보」(1996.3.26): 「중앙일보」(1996.12.13) 등을 참조할 것.

13) 전용, "북한의 권력변동과 통일대책," 이영선 편, 『통일준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3 (도서출판 오름, 1997), 38-40쪽.

에 외부적인 압력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체제는 전반적으로 위기가 심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체제붕괴 혹은 붕괴가 임박한 단계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체제의 안정도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터진 항아리에 물기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말하는 이른바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현재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현재의 위기상황의 극복은 단순히 경제관리방식의 개선과 같은 국부적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근본적 개혁과 개방이 취해져야 가능하며, 그러한 개혁·개방은 마침내 김정일의 퇴장과 체제붕괴 내지 체제포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¹⁴⁾

결국 북한체제는 현재 岐路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개혁·개방정책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체제모순이 폭발하여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한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방에 수반되는 개혁이 결국은 체제붕괴로까지 인도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사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북한관과 국가관 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장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급작스런 붕괴든 북한이 먼 훗날 체제포기에 따른 소멸이든 남북통일이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교류없이 분단된 상태에서 평행선을 걸으면서 발전해 온 두 이질적인 체제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말이 그렇지만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경제적 통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기는 더욱 어렵다. 한편으로 통일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통일비용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이질화된 사회가 체제를 통합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심리적·정신적 통일에 이르는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은 사회심리적으로 엄청난 통일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관련하여 통일대비 내지 통일이후에 대한 미래적 통일관을 이미 여하히 갖추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 도출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끝으로 통일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의 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이다. 주지하듯이, 지난 1997년 후반기에 급격하게 무너진 한국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14) 방찬영, 『岐路에서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서울: 박영사, 1995) 참조.

끝에 결국 IMF체제하에 빠져들고 말았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대기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속에서 수많은 실업자군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력 우위에 입각한 압박식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최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종교단체와 정부간의 불협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우리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북한의 실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지난 2월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여야정권교체를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안보 및 통일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①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②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③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등의 통일 3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강조하고, 통일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여 다자간 평화협력체제의 구상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구상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적,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바람론>보다는 <햇볕론>을 명확히 한 것이며, 정경분리원칙에 입각 '포용'과 '협상'에 입각한 대북전략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대응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은 아마도 기존의 양면전략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진다. 즉 정치적으로는 평화공세를 펴면서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의 상황과 통일추진의 어려움,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망 등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배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

2) 조사도구

이상에서 논의한 몇 가지 배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통일의식을 조사할 조사도구로서 6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3문항은 응답자의 배경에 대한 것이고,

통일의식 조사를 위한 순수 목적적 문항은 5영역 37문항이다. 그리고 1개 영역 5개 문항은 현재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통일교육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설정되었다. 조사도구의 영역별 문항구성은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이들은 예비조사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표 4> 조사도구의 영역별문항구성

| 영역 | 질문내용 | 문항번호 |
|----------------------|--|--|
| 응답자의 배경 | 1. 성별 2. 사는 곳 3. 가정형편 | (1), (2), (3) |
|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 (민족의식) | 1. 남북한은 한겨레인가 2. 북한에 대한 원조여부 3.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 때의 태도 4. 운동경기시 응원팀 5. 월드컵 시합장소로 북한배정에 대한 견해 | (9), (10), (11), (12), (42) |
|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인식 (통일관) | 1. 분단의 원인 2. '통일' 하면 떠오르는 산 3. 통일의 당위성 4.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5. 통일은 이루어 질 것인가 6. 통일의 방법 7. 통일의 장애요인 8. 통일을 위해 해야할 일 9. 통일노력의 주체 10. 통일글짓기의 주체 | (14), (15), (16), (17), (18), (19), (20), (21), (22), (45) |
| 북한에 대한 현재적 인식 (북한관) | 1. 운동경기시 응원팀 2.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것 3. 북한의 공식명칭 4.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5. 북한의 주민생활 수준 6. 북한 경제의 침체원인 7. 북한의 지도자 | (13), (23), (24), (25), (26), (27), (28) |
| 국가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국가관) | 1. 무력도발의 이유 2.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통일노력을 해야 하는가 3. 전쟁발발시 태도 4.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통일노력 5. 제주도과 통일문제 | (29), (30), (31), (43), (44) |
|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의식 (미래관) | 1.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인식 2.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인식 3. 통일한국의 이념 4. 남북한간 화합의 걸림돌 5. 북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여부 6. 남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여부 7. 같은 반이 된 북한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8. 통일비용의 감수여부 9. 통일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은 해야 하는가 10.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 1. 평소 관심도 및 정보원 2.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 및 관심도 3. 학교 통일교육자료에 대한 인식 | (4), (5), (6), (7), (8) |

모든 문항은 몇 개의 응답범위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자기의견에 따라 택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다(15, 23번 문항). 특히 피조사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질문의 수준을 학생들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질문은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인지적 측면), 무엇을 느끼고 있나(정의적 측면)'하는 인식에 관해 묻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하부 영역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을 반드시 차례대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이는 대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3. 표집 및 자료처리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정치교육의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아동후기에¹⁵⁾ 해당하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으로 하였다. 제주도 초등학생의 모집단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의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였는데,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5개교, 서귀포시 4개교, 북제주군 5개교, 남제주군 7개교, 총 21개교를 무작위추출, 표집학교를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1997년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해당학교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회수 하였다. 회수율을 보면 선정된 학교의 재학생 6학년 1학년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아동수 만큼 질문지를 배부, 총 950부를 배부하여 실시한 후 925부를 회수하여 97.37%의 회수율을 보았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 지역 | 학교수 | 배부수 | 회수수 | 제외수 | 통계수 |
|------|-----|-----|------------|-----|------------|
| 제주시 | 5 | 380 | 370(97.37) | 1 | 369(97.11) |
| 서귀포시 | 4 | 180 | 172(95.56) | 2 | 170(94.44) |
| 북제주군 | 5 | 210 | 204(97.14) | 1 | 203(96.67) |
| 남제주군 | 7 | 180 | 179(99.44) | · | 179(99.44) |
| 계 | 21 | 950 | 925(97.37) | 4 | 921(96.95) |

15) 김희.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8), 註6 참조.

2) 자료처리

모집된 자료는 각 배경변인별로 나누어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로 산출하였으며, 배경변인별 동일의식의 유의한 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X^2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4. 제한점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제주도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 때문에 제주도내 소재하는 21개 학교만을 무작위 표집방법에 의해 조사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둘째, 특히 배경변인 중 '생활수준'별 표집은 변인구성(매우부유, 부유, 중간, 가난, 매우 가난)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더욱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연구결과 해석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석을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셋째,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에 있어 질문지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갖는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¹⁶⁾

16) 질문지법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질문지를 잘못 꾸밀 경우 불성실한 반응을 얻기 쉽다. 사실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없다. 응답자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등. 김종서, 『교육연구의 방법』 (서울: 배영사, 1980), 172쪽.

Ⅲ. 연구결과 및 논의

통일의식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는 민족관,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 미래관의 영역별 순서에 따라 각 영역의 문항들을 분석하되, 첫째, 각 문항들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각 문항들에 대한 반응결과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논의하며, 셋째,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결과를 종합제시 하였다. 모든 문항별 분석과 영역별의 통일의식의 종합분석은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비(%)와 X^2 검증을 하였다.

1.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민족관)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 이끌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모든 통일노력과 통일논의도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감의 바탕위에서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통일교육의 출발점 또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 내지 민족관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 문항을 할애 하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① 남북한은 한겨레인가, ②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 주어야 하는가, ③ 우연히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 때의 태도, ④ 운동경기시 응원팀, ⑤ 월드컵 축구대회 시합장소 북한 배경에 대한 견해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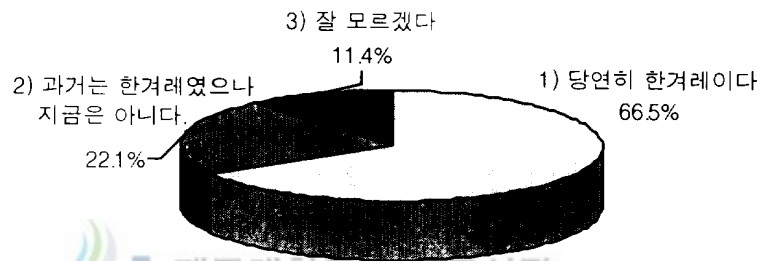
1) 남북한은 한겨레인가?

통일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아직도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겨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한은 모두 한겨레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9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당연히 한겨레이다, ②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연히 한겨레이다”(66.5%),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22.1%), “잘 모르겠다”(11.4%)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직도 66.5%라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한겨레라는 인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33.5%나 되는 아동들이 부정적 혹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이에 대한 질문은 5년 전 金姬에 의해 똑같이 조사되었는데, 그 때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겨레에 대한 인식정도가 더욱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김희의 조사결과에서는 “당연히 한겨레이다”(73.1%),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14.9%), “잘 모르겠다”(12.9%) 순이었다.¹⁷⁾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현실인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단상태가 길어질수록 위험스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¹⁸⁾이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림 1〉 '남북한은 모두 한겨레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여자(63.2%)보다 남자(69.6%)가 좀 더 한겨레라는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주지별로 볼 때 제주시(67.8%)와 서귀포시(67.6%)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남제주군(64.8%)과 북제주군(64.5%)보다 약간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중간(67.5%)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난(63.9%)하거나 부유(56.8%)한 집안의 아동들의 경우 좀 더 회의적이고 부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17) 김희,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인식에 관한 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8), 14-15쪽.

18) 김희, 위논문, 같은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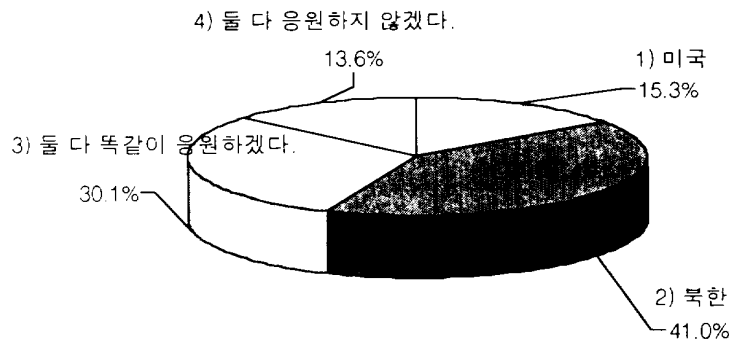
〈표 6〉 '남북한은 모두 한겨레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66.5 (612) | 69.6 (323) | 63.2 (289) | 67.8 (250) | 67.6 (115) | 64.5 (131) | 64.8 (116) | 75.0 (6) | 56.8 (42) | 67.5 (537) | 63.9 (23) | 57.1 (4) |
| 2) | 22.1 (204) | 21.1 (98) | 23.2 (106) | 24.7 (91) | 24.7 (42) | 15.3 (31) | 22.3 (40) | 12.5 (1) | 39.2 (29) | 20.7 (165) | 19.4 (7) | 28.6 (2) |
| 3) | 11.4 (105) | 9.3 (43) | 13.6 (62) | 7.6 (13) | 7.6 (28) | 20.2 (41) | 12.9 (23) | 12.5 (1) | 4.1 (3) | 11.8 (94) | 16.7 (6)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6.04$ P = 0.1959 | | df = 12 $\chi^2 = 32.91$ P = 0.0010 | | | | df = 16 $\chi^2 = 19.59$ P = 0.2391 | | | | |
| ☞ 답지내용 1) 당연히 한겨레이다. 2)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2)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 응원팀

'우리는 한겨레'라는 인식을 교차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하여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12번)라고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미국, ② 북한, ③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④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2〉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41.0%),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30.1%), "미국"(15.3%),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13.6%)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질문내용 자체가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측면이라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쪽도 아닌 제3국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 되며, 더욱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아동들이 4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북한동포를 우리와 같은 한겨레로 보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7>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15.3 (141) | 18.5 (86) | 12.0 (55) | 17.6 (65) | 20.6 (35) | 6.4 (13) | 15.6 (28) | 37.5 (3) | 20.3 (15) | 14.2 (113) | 25.0 (9) | 14.3 (1) |
| 2) | 41.0 (378) | 40.3 (187) | 41.8 (191) | 40.1 (148) | 36.5 (62) | 42.9 (87) | 45.3 (81) | 25.0 (2) | 35.1 (26) | 42.2 (336) | 30.6 (11) | 42.9 (3) |
| 3) | 30.1 (277) | 28.4 (132) | 31.7 (145) | 29.0 (109) | 30.0 (51) | 35.0 (71) | 25.7 (46) | 37.5 (3) | 27.0 (20) | 30.9 (246) | 22.2 (8) | - |
| 4) | 13.6 (125) | 12.7 (59) | 14.4 (66) | 12.7 (47) | 12.9 (22) | 15.8 (32) | 13.4 (24) | - | 17.6 (13) | 12.7 (101) | 22.2 (8) | 42.9 (3)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1.04$ P = 0.0260 | | df = 12 $\chi^2 = 22.85$ P = 0.0289 | | | | df = 16 $\chi^2 = 26.21$ P = 0.0510 | | | | |
| ☞ 답지내용 1) 미국 2) 북한 3)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4)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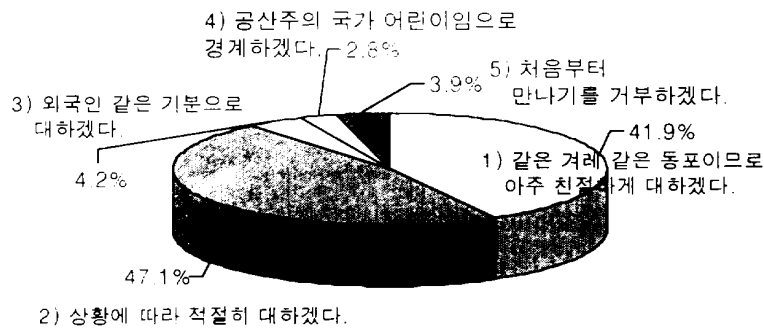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이나 거주지별로는 크게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수준별에서는 역시 부유하거나 가난한 아동들보다 "중간"이 북한(42.2%)이나 둘 다 응원하겠다(30.9%)는 반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표 6>의 분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3)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 때 태도

또 다른 질문으로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연히 북한 어린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해 주

시겠습니까?”(11번)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1) 같은 겨레 같은 동포이므로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하겠다. 2)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3)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4) 공산주의 국가 어린이임으로 경계하겠다. 5) 처음부터 만나기를 거부하고 피하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여러분이 우연히 북한 어린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그 결과 〈그림 3〉에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47.1%), “같은 겨레 같은 동포이므로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하겠다”(41.9%),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4.2%), “처음부터 만나기를 거부하고 피하겠다”(3.9%), “공산주의 국가 어린이임으로 경계하겠다”(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려되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 질문은 김희에 의해서도 똑같이 조사되었는데,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주겠다”(69.5%),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23.9%),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2.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와 대조를 이룬다. 북한에 대한 동포의식, 한겨레라는 민족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자아동(40.1%)보다 여자아동(43.8%)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표 6〉의 분석결과와 좀 다르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44.1%), 서귀포시(42.9%), 제주시(41.7%)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북제주군(39.4%)는 좀 더 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45.9%), 중간(42.1%)보다 가난(30.6%)한 아동들이 더 낮은 반응

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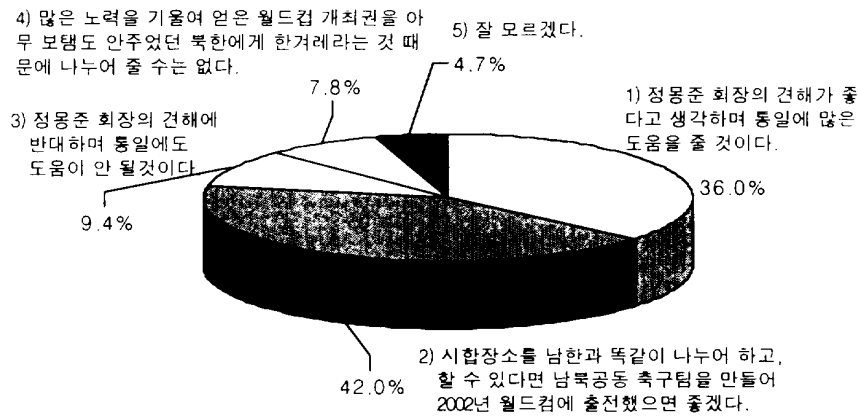
〈표 8〉 여러분이 우연히 북한 어린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41.9 (386) | 40.1 (186) | 43.8 (200) | 41.7 (154) | 42.9 (73) | 39.4 (80) | 44.1 (79) | 37.5 (3) | 45.9 (34) | 42.1 (335) | 30.6 (11) | 42.9 (3) |
| 2) | 47.1 (434) | 46.3 (215) | 47.9 (219) | 44.4 (164) | 47.1 (80) | 54.2 (110) | 44.7 (80) | 37.5 (3) | 41.9 (31) | 47.6 (379) | 50.0 (18) | 42.9 (3) |
| 3) | 4.2 (39) | 4.5 (21) | 3.9 (18) | 3.8 (14) | 4.7 (8) | 3.9 (8) | 5.0 (9) | 12.5 (1) | 2.7 (2) | 4.3 (34) | 5.6 (2) | - |
| 4) | 2.8 (26) | 3.4 (16) | 2.2 (10) | 4.6 (17) | 2.4 (4) | 0.5 (1) | 2.2 (4) | - | 4.1 (3) | 2.5 (20) | 8.3 (3) | - |
| 5) | 3.9 (36) | 5.6 (26) | 2.2 (10) | 5.4 (20) | 2.9 (5) | 2.0 (4) | 3.9 (7) | 12.5 (1) | 5.4 (4) | 3.5 (28) | 5.6 (2)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9.21$ P = 0.0558 | | df = 12 $\chi^2 = 16.99$ P = 0.1498 | | | | df = 16 $\chi^2 = 13.69$ P = 0.6214 | | | | |
| ☞ 답지내용 1) 같은 거래 같은 동포이므로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하겠다. 2)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3)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4) 공산주의 국가 어린이임으로 경계하겠다. 5) 처음부터 만나기를 거부하고 피하겠다. | | | | | | | | | | | | |

4) 월드컵 축구대회 시합장소 북한배정에 대한 견해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시합장소로 한 곳을 북한에 배정할 수 있다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42번)를 질문해 보았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정몽준 회장의 견해가 좋다고 생각하며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② 시합장소를 남한과 똑같이 나누어 하고, 할 수 있다면 남북공동 축구대표팀을 만들어 2002년 월드컵에 출전했으면 좋겠다, ③ 정몽준 회장의 견해에 반대하여 통일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④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월드컵 개최권을 아무 보탬도 안주었던 북한에게 한 거래라는 것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다, ⑤ 잘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4〉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시합장소로 한 곳을 북한에 배정할 수 있다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앞선 결과들과 달리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즉 “시합장소를 남한과 똑같이 나누어 하고, 할 수 있다면 남북공동 축구대표팀을 만들어 2002년 월드컵에 출전했으면 좋겠다”(42.0%), “정몽준 회장의 견해가 좋다고 생각하며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36.0%), “정몽준 회장의 견해에 반대하며 통일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9.4%) 순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는 한겨레라 동족의식 보다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우리 축구팀이 더 큰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것은 부정적 답변이 21.9%에 달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75.1%)보다 남자(81.1%) 아동들이 더 높는데 이러한 결과도 우리의 분석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84.9%)과 서귀포시(76.4%)가 좀 더 적극적이는데, 이는 서귀포가 월드컵 축구시합 장소의 한 곳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수준별로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표 9〉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시합장소로 한 곳을 북한에 배정할 수 있다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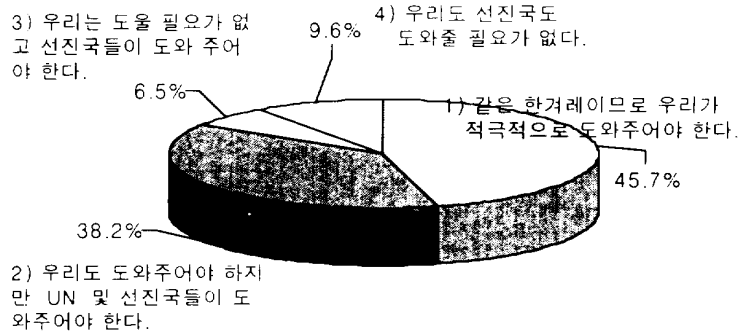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36.0 (332) | 39.7 (184) | 32.4 (148) | 35.8 (132) | 38.2 (65) | 34.5 (70) | 36.3 (65) | 25.0 (2) | 40.5 (30) | 34.8 (277) | 52.8 (19) | 57.1 (4) |
| 2) | 42.0 (387) | 41.4 (192) | 42.7 (195) | 39.8 (147) | 38.2 (65) | 43.3 (88) | 48.6 (87) | 25.0 (2) | 32.4 (24) | 43.7 (348) | 33.3 (12) | 14.3 (1) |
| 3) | 9.4 (87) | 10.6 (49) | 8.3 (38) | 10.8 (40) | 12.4 (21) | 7.9 (16) | 5.6 (10) | 37.5 (3) | 13.5 (10) | 9.0 (72) | 5.6 (2) | - |
| 4) | 7.8 (72) | 5.2 (24) | 10.5 (48) | 10.8 (40) | 8.2 (14) | 5.4 (11) | 3.9 (7) | 12.5 (1) | 9.5 (7) | 7.8 (62) | 2.8 (1) | 14.3 (1) |
| 5) | 4.7 (43) | 3.2 (15) | 6.1 (28) | 2.7 (10) | 2.9 (5) | 8.9 (18) | 5.6 (10) | - | 4.1 (3) | 4.6 (37) | 5.6 (2)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7.19$ P = 0.0017 | | df = 12 $\chi^2 = 30.37$ P = 0.0024 | | | | df = 16 $\chi^2 = 22.57$ P = 0.1255 | | | | |
| ☞ 답지내용 1) 정몽준 회장의 견해가 좋다고 생각하며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시합장소를 남한과 똑같이 나누어 하고, 할 수 있다면 남북공동 축구대표팀을 만들어 2002년 월드컵에 출전했으면 좋겠다. 3) 정몽준 회장의 견해에 반대하며 통일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4)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월드컵 개최권을 아무 보탬도 안주었던 북한에게 한겨레라는 것 때문에 나누어 줄 수는 없다. 5)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5)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 주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최근 북한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 보았다. 즉 “요즘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10번)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같은 한겨레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② 우리도 도와 주어야 하지만 UN 및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③ 우리는 도움 필요가 없고 UN 및 선진국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④ 우리도 선진국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에서 나타난 것처럼, “같은 한겨레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

〈그림 5〉 요즘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야 한다”(45.7%), “우리도 도와 주어야 하지만 UN 및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38.2%), “우리도 선진국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9.6%), “우리는 도울 필요가 없고 UN 및 선진국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6.5%) 순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북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반응이 비교적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선 질문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는 오늘날 IMF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UN 및 선진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돕거나 우리도 도울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43.3)보다 여자(48.1%)아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반응이 남제주군(51.4%), 북제주군(47.8%), 서귀포시(46.5%), 제주시(4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별로는 부유(37.8%)한 집안의 아동들보다 가난(55.6%)과 중간(46.4%)인 집안의 아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마치 ‘부자가 더 인색하다’는 우리의 속담을 연상시키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민족동질성에 대한 민족의식, 동포의식, 한겨레의식을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여 보았거니와, 각 문항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민족의식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5년 전의 김희의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볼 때 그러한 현상은 뚜

렸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단상태의 지속시간이 더 지날수록 한 거래라는 의식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표 10〉 요즘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45.7 (421) | 43.3 (201) | 48.1 (220) | 41.5 (153) | 46.5 (79) | 47.8 (97) | 51.4 (92) | 25.0 (2) | 37.8 (28) | 46.4 (369) | 55.6 (20) | 28.6 (2) |
| 2) | 38.2 (352) | 37.5 (174) | 38.9 (178) | 37.7 (139) | 37.6 (64) | 42.9 (87) | 34.6 (62) | 37.5 (3) | 35.1 (26) | 39.1 (311) | 25.0 (9) | 42.9 (3) |
| 3) | 6.5 (60) | 7.8 (36) | 5.3 (24) | 7.6 (28) | 8.2 (14) | 4.4 (9) | 5.0 (9) | 25.0 (2) | 9.5 (7) | 5.9 (47) | 8.3 (3) | 14.3 (1) |
| 4) | 9.6 (88) | 11.4 (53) | 7.7 (35) | 13.3 (49) | 7.6 (13) | 4.9 (10) | 8.9 (16) | 12.5 (1) | 17.6 (13) | 8.7 (69) | 11.1 (4)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4 $\chi^2=7.01$ P=0.1351 | | df=12 $\chi^2=22.16$ P=0.0356 | | | | df=16 $\chi^2=18.41$ P=0.2999 | | | | |
| ☞ 답지내용 1) 같은 한겨레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2) 우리도 도와 주어야 하지만 UN 및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3) 우리는 도움 필요가 없고 UN 및 선진국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4) 우리도 선진국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 | | | | | | | | | | | | |

2.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의식(통일관)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의식(통일관)에서는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당위성, 통일이 안되는 원인, 통일의 방법, 통일노력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면, ① 분단의 원인, ② "통일"하면 떠오르는 산, ③ 통일의 당위성, ④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⑤ 통일은 이루어질 것인가, ⑥ 통일의 장애요인, ⑦ 통일의 방법, ⑧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⑨ 통일노력의 주체, ⑩ 통일 글짓기의 주체 등 1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단의 원인

남북분단은 2차대전 이후 세계체제가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국제정치적 격변기에 국제적 냉전을 반영한 남북한간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분단은 국제정치적 요인과 아울러 민족내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민족은 세계적 수준의 냉전 속도보다 국내적 분단과 내부 대립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¹⁹⁾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에서는 분단의 원인을 다분히 국제적 요인에만 기인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분명 분단의 원인에 국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전적으로 국제적 요인으로만 돌리게 될 때, 자칫 통일문제까지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라 인식하는 오류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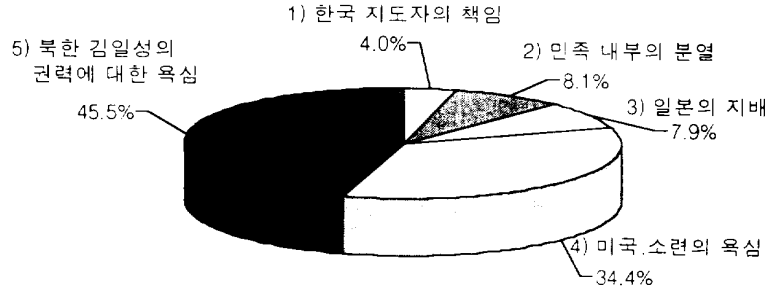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사실과 관계없이, 여기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14번)라고 질문해 보았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한국 지도자의 책임, ② 민족 내부의 분열, ③ 일본의 지배, ④ 미국·소련의 욕심, ⑤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45.5%), “미국·소련의 욕심”(34.4%), “민족내부의 분열”(8.1%), “일본의 지배”(7.9%), “한국 지도자의 책임”(4.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질문은 93년 金姬에 의해서도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64.2%), “미국·소련의 욕심”(22.0%), “민족내부의 분열”(7.3%) 순으로 나타나, 이번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응답순서를 보여주고 있다.²⁰⁾ 그러나 구체적인 응답율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93년보다 현재의 아동들은 분단의 원인을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소련의 욕심”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민족내부의 분열”이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반응도도 미비한 차이지만 예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대다수의 아동들은 분단의 원인을 김일성과 국제정치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19) 박명림,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적대와 의존이 대쌍관계 동학”, 『국가전략』 3권 1호(성남: 세종연구소, 1996), 44-45쪽.

20) 김희, 앞의 논문, 19-20쪽.

〈그림 6〉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다음 중 어느 것
이라 생각합니까?



〈표 11〉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다음 중 어느 것
이라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4.0 (37) | 4.1 (19) | 3.9 (18) | 4.1 (15) | 4.7 (8) | 4.9 (10) | 2.2 (4) | - | 2.7 (2) | 4.3 (34) | 2.8 (1) | - |
| 2) | 8.1 (75) | 7.5 (35) | 8.8 (40) | 8.9 (33) | 4.7 (8) | 6.9 (14) | 11.2 (20) | 12.5 (1) | 10.8 (8) | 7.7 (61) | 8.3 (3) | 28.6 (2) |
| 3) | 7.9 (73) | 8.8 (41) | 7.0 (32) | 7.0 (26) | 8.8 (15) | 11.3 (23) | 5.0 (9) | - | 2.7 (2) | 8.0 (64) | 16.7 (6) | 14.3 (1) |
| 4) | 34.4 (317) | 38.8 (180) | 30.0 (137) | 28.2 (104) | 41.2 (70) | 30.5 (62) | 45.3 (81) | 50.0 (4) | 40.5 (30) | 34.0 (271) | 25.0 (9) | 42.9 (3) |
| 5) | 45.5 (419) | 40.7 (189) | 50.3 (230) | 51.8 (191) | 40.6 (69) | 46.3 (94) | 36.3 (65) | 37.5 (3) | 43.2 (32) | 46.0 (366) | 47.2 (17)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16 $\chi^2 = 17.08$ P = 0.3799 | | df = 12 $\chi^2 = 33.43$ P = 0.0008 | | | | df = 4 $\chi^2 = 11.26$ P = 0.0237 | | | | |
| ◀ 답지내용 1) 한국 지도자의 책임 2) 민족 내부의 분열 3) 일본의 지배 4) 미국 소련의 욕심 5)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 남자 아동들은 분단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미국·소련의 욕심"(38.8%)에, 여자 아동들은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50.3%)에 더 돌리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분단의 원인을 제주도(51.8%)와 북제주군

(46.3%)은 상대적으로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에, 서귀포시(41.2%)와 남제주군 (45.3%)은 “미국·소련의 욕심”에 더 돌리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한 집안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소련의 욕심”(40.5%)에, 중간(46.0%)과 가난(47.2%)한 집안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에 더 분단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

2) “통일”하면 떠오르는 산

이 질문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서 던진 물음이었다. 질문은 “‘통일’하면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산이 있다면 모두 고르세요”(15번)라고 하였고,

〈표 12〉 ‘통일’하면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산이 있다면 모두 고르세요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21.3 (196) | 22.4 (104) | 20.1 (92) | 28.2 (104) | 7.1 (12) | 17.2 (35) | 25.1 (45) | 50.0 (4) | 29.7 (22) | 29.0 (159) | 30.6 (11) | - |
| 2) | 8.9 (82) | 7.8 (36) | 10.1 (46) | 10.0 (37) | 5.9 (10) | 11.8 (24) | 6.1 (11) | 25.0 (2) | 1.4 (1) | 8.8 (70) | 25.0 (9) | - |
| 3) | 98.3 (905) | 99.4 (461) | 97.2 (444) | 97.6 (360) | 99.4 (169) | 98.0 (199) | 97.2 (174) | 87.5 (7) | 98.6 (73) | 98.2 (782) | 97.2 (35) | 85.7 (6) |
| 4) | 8.5 (78) | 12.5 (58) | 4.4 (20) | 7.0 (26) | 7.1 (12) | 10.3 (21) | 10.6 (19) | - | 10.8 (8) | 6.4 (51) | 38.9 (14) | 71.4 (5) |
| 5) | 8.1 (75) | 10.6 (49) | 5.7 (26) | 10.6 (39) | 2.9 (5) | 8.4 (17) | 7.8 (14) | - | 8.1 (6) | 6.4 (51) | 50.0 (18) | - |
| 6) | 2.5 (23) | 1.1 (10) | 2.8 (13) | 3.5 (13) | 1.2 (2) | 2.5 (5) | 1.7 (3) | - | 4.1 (3) | 2.0 (16) | 11.1 (4) | - |
| 7) | 80.9 (745) | 87.3 (405) | 74.4 (340) | 81.6 (301) | 50.6 (86) | 96.6 (196) | 83.8 (150) | 50.0 (4) | 94.6 (70) | 79.8 (635) | 83.3 (30) | 85.7 (6) |
| 8) | 7.7 (71) | 9.7 (45) | 5.7 (26) | 7.6 (28) | 4.7 (8) | 6.9 (14) | 11.7 (21) | - | 6.8 (5) | 7.2 (57) | 13.9 (5) | 57.1 (4)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14 $\chi^2 = 17.27$ P = 0.2420 | | df = 42 $\chi^2 = 36.15$ P = 0.7246 | | | | df = 42 $\chi^2 = 45.62$ P = 0.3239 | | | | |
| ☞ 답지내용 1) 한라산 2) 설악산 3) 백두산 4) 장백산 5) 태백산 6) 지리산 7) 금강산 8) 묘향산 | | | | | | | | | | | | |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한라산, ② 설악산, ③ 백두산, ④ 장백산, ⑤ 태백산, ⑥ 지리산, ⑦ 금강산, ⑧ 묘향산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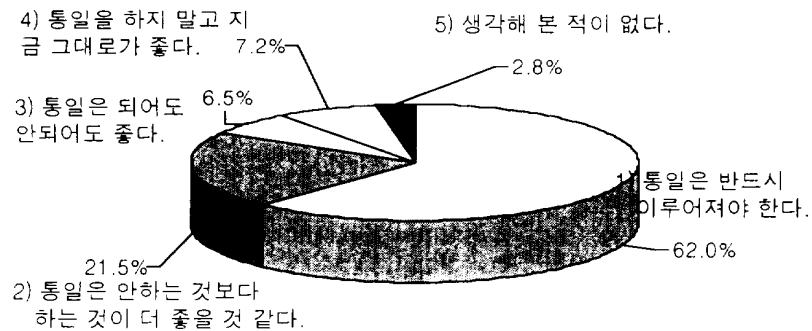
여기서 질문자가 예상했던 답변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통일의 상징성을 염두에 둘 때, “한라산”과 “백두산”을 가장 많이 꼽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표 12>에서 보듯이, “백두산”(98.3%), “금강산”(80.9%), “한라산”(21.3%) 순으로 나타나, 질문자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였다. 이로부터 아동들은 통일하면 북한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배경변인별로는 유의미한 차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논의를 생략한다.

3)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16번)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② 통일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③ 통일은 되어도 안되어도 좋다, ④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 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7>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7>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62.0%), “통일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다”(21.5%),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가 좋

다”(7.2%)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반응결과는 앞의 민족관의 <표 6: 남북은 한 겨레인가>에서 반응하였던 응답을²¹⁾과도 거의 비슷함을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겨레라는 민족의식의 약화됨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낮아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표 13>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62.0 (571) | 67.0 (311) | 56.9 (260) | 61.0 (225) | 64.1 (109) | 60.1 (122) | 64.2 (115) | 50.0 (4) | 66.2 (49) | 62.2 (495) | 58.3 (21) | 28.6 (2) |
| 2) | 21.5 (198) | 17.2 (80) | 25.8 (118) | 21.1 (78) | 22.4 (38) | 26.6 (54) | 15.6 (28) | 25.0 (2) | 18.9 (14) | 21.1 (168) | 30.6 (11) | 42.9 (3) |
| 3) | 6.5 (60) | 5.4 (25) | 7.7 (35) | 6.0 (22) | 7.1 (12) | 5.4 (11) | 8.4 (15) | 12.5 (1) | 4.1 (3) | 7.0 (56) | - | - |
| 4) | 7.2 (66) | 6.9 (32) | 7.4 (34) | 8.9 (33) | 4.1 (7) | 4.4 (9) | 9.5 (17) | 12.5 (1) | 6.8 (5) | 7.0 (56) | 11.1 (4) | - |
| 5) | 2.8 (26) | 3.4 (16) | 2.2 (10) | 3.0 (11) | 2.4 (4) | 3.4 (7) | 2.2 (4) | - | 4.1 (3) | 2.6 (21) | - | 28.6 (2)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4.90$ P = 0.0049 | | df = 12 $\chi^2 = 15.39$ P = 0.2206 | | | | df = 16 $\chi^2 = 29.01$ P = 0.0239 | | | | |
| ◀ 답지내용 1)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2) 통일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3) 통일은 되어도 안되어도 좋다. 4)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 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는 여학생(56.9%)보다 남학생(67.0%)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제주시(61.0%)와 북제주군(60.1%)보다 남제주군(64.2%)과 서귀포시(64.1%)가 좀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선 조금 비약적인 해석일 것이지만, 서귀포가 세계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앞으로 통일정상회담 장소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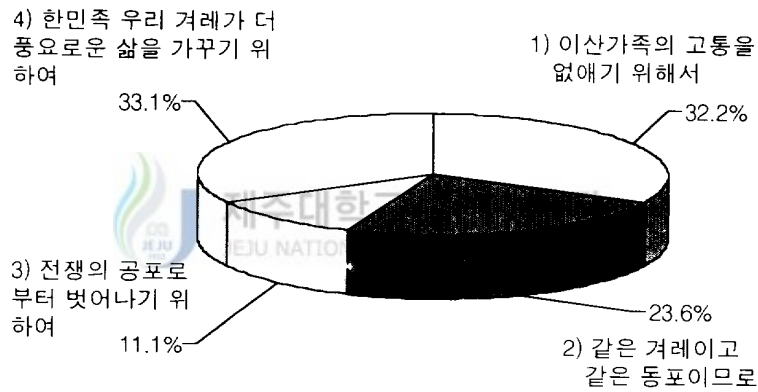
21) 여기서 응답율은 “당연히 한겨레이다”(66.5%),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22.1%), “잘 모르겠다”(11.4%) 순으로 나타났었다. <표 6> 참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66.2%), 중간(62.2%), 가난(58.3%) 순으로 나타나. 앞의 <표 6>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

4)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7번)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② 같은 겨레이고 같은 동포이므로, ③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④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8>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그림 8>에서 보듯이,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33.1%),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32.2%), “같은 겨레이고 같은 동포이므로”(23.6%),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은 93년 金姬에 의해서도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39.7%),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30.7%),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13.0%),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해”(9.9%) 순이었다.²²⁾ 여기서 보듯이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93년에서

22) 김희, 앞의 논문, 27-30쪽.

“한민족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선두에 있는데 반해, 본 조사에서는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가 선두에 오고 있다. 한겨레라는 민족의식은 약화된 반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공리주의적 사고로서, 결과의 정확한 함의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통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한편, 93년에나 지금에나 다름없이 많은 아동들이 통일의 이유를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지적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의 효과일 수 있으나, 미래의 과제로서 통일문제를 생각하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통일문제는 이산가족들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거나,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표 14〉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32.2 (297) | 30.6 (142) | 33.9 (155) | 28.5 (105) | 38.2 (65) | 34.5 (70) | 31.8 (57) | - | 29.7 (22) | 32.2 (256) | 47.2 (17) | 28.6 (2) |
| 2) | 23.6 (217) | 23.9 (11) | 23.2 (106) | 22.2 (82) | 27.1 (46) | 22.7 (46) | 24.0 (43) | 50.0 (4) | 18.9 (14) | 23.7 (189) | 22.2 (8) | 28.6 (2) |
| 3) | 11.1 (102) | 10.6 (49) | 11.6 (53) | 11.1 (41) | 12.4 (21) | 8.9 (18) | 12.3 (22) | - | 13.5 (10) | 10.9 (87) | 13.9 (5) | - |
| 4) | 33.1 (305) | 34.9 (162) | 31.3 (143) | 38.2 (141) | 22.4 (38) | 34.0 (69) | 31.8 (57) | 50.0 (4) | 37.8 (28) | 33.2 (264) | 16.7 (6) | 42.9 (3)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2.85$ P = 0.5825 | | df = 12 $\chi^2 = 20.58$ P = 0.0568 | | | | df = 16 $\chi^2 = 15.25$ P = 0.5062 | | | | |
| ◀ 답지내용 1)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2) 같은 겨레이고 같은 동포이므로 3)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4)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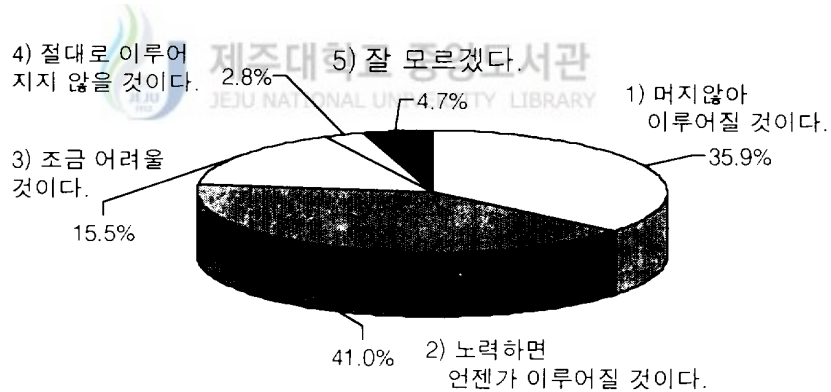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4〉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33.9%)를,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34.9%)를 통일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자 아동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해서일 가능성도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응답순위 1-2위에

서 거의 같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38.2%)를, 서귀포시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38.2%)를 통일의 이유로 들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응답순위 1-2위에서 ‘중간’은 거의 비슷하고, ‘부유’한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37.8%)를, ‘가난’한 어린이들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47.2%)를 통일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어린이들이 한겨레 의식도 높았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5) 통일은 이루어질 것인가?

다음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17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②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③ 조금 어려울 것이다, ④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9〉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9〉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41.0%),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35.9%), “조금 어려울 것이다”(15.5%)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에 대한 질문 역시 93년 金姬에 의해서도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49.4%),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34.1%), “조금 어려울 것이다”(11.3%)의

순으로 나타났었다.²³⁾ 여기서 보듯이, 93년과 현재의 응답율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93년의 순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동서독 통일경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동서독과는 달리 우리는 통일을 하지 못했기에 현재는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 한걸음 물러선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5.8%의 아동들이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체제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의 통일환경의 변화, 특히 한국경제의 추락은 통일 가능 시기를 더욱 늦추게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율이 통일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율보다 더 낮아졌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²⁴⁾

〈표 15〉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35.9 (331) | 40.1 (186) | 31.7 (145) | 35.8 (132) | 42.4 (72) | 35.5 (72) | 30.7 (55) | 25.0 (2) | 37.8 (28) | 35.8 (285) | 38.9 (14) | 28.6 (2) |
| 2) | 41.0 (378) | 37.3 (173) | 44.9 (205) | 40.7 (150) | 37.1 (63) | 42.4 (86) | 44.1 (79) | 37.5 (3) | 39.2 (29) | 41.5 (330) | 36.1 (13) | 42.9 (3) |
| 3) | 15.5 (143) | 13.4 (62) | 17.7 (81) | 16.3 (60) | 15.3 (26) | 12.8 (26) | 17.3 (31) | 25.0 (2) | 16.2 (12) | 15.5 (123) | 13.9 (5) | 14.3 (1) |
| 4) | 2.8 (26) | 3.2 (15) | 2.4 (11) | 3.8 (14) | 2.4 (4) | 3.0 (6) | 1.1 (2) | - | 2.7 (2) | 2.9 (23) | 2.8 (1) | - |
| 5) | 4.7 (43) | 6.0 (28) | 3.3 (15) | 3.5 (13) | 2.9 (5) | 6.4 (13) | 6.7 (12) | 12.5 (1) | 4.1 (3) | 4.4 (35) | 8.3 (3)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4.80$ P = 0.0051 | | df = 12 $\chi^2 = 14.20$ P = 0.2879 | | | | df = 16 $\chi^2 = 5.53$ P = 0.9924 | | | | |
| ☞ 답지내용 1)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2)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조금 어려울 것이다. 4)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5)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23) 김희, 앞의 논문, 22-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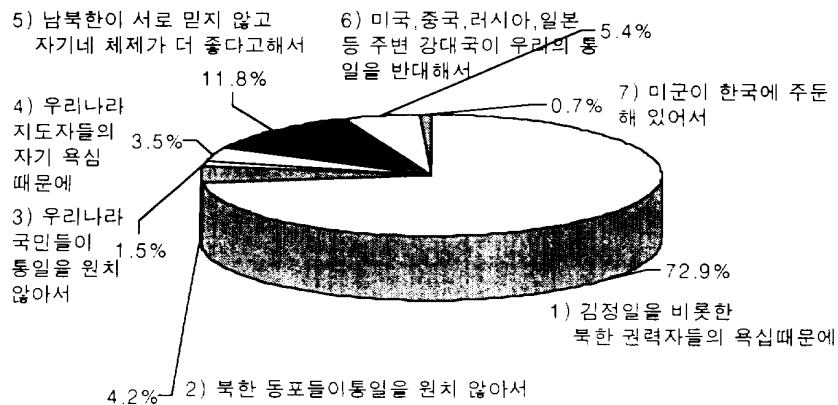
24) 93년의 경우는 83.5%이고, 현재는 76.9%임.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 남자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40.1%)에, 여자아동들은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44.9%)에 더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남자와 여자 아동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통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42.4%)라고 보는 반면, 남제주군(44.1%), 북제주군(42.4%) 및 제주시(40.7%)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응답율이 높다. 생활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6)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의 장애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습니까?”(19번)이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② 북한 동포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③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④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자기 욕심 때문에, ⑤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해서, ⑥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해서, ⑦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0>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습니까?



그 결과 <그림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절대다수의 아동들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이 욕심 때문에"(72.9%) 통일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11.8%의 아동들은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해서"를 꼽고 있다. 93년 김희에 의해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김일성이 북한을 개방하지 않아서"(55.9%),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아서"(29.0%), "민주주의(남한사회)와 공산주의(북한사회)가 서로 자기네 것이 좋다고 우겨서"(8.0%) 순이었다.²⁵⁾ 93년의 결과와 현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응답율의 순위는 비슷하나 '김일성 또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의

<표 16>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72.9 (671) | 72.8 (338) | 72.9 (333) | 73.7 (272) | 77.6 (132) | 68.5 (139) | 71.5 (128) | 87.5 (7) | 74.3 (55) | 73.4 (584) | 55.6 (20) | 71.4 (5) |
| 2) | 4.2 (39) | 4.1 (19) | 4.4 (20) | 3.3 (12) | 5.9 (10) | 4.4 (9) | 4.5 (8) | - | 6.8 (5) | 3.8 (30) | 11.1 (4) | - |
| 3) | 1.5 (14) | 2.2 (10) | 0.9 (4) | 1.6 (6) | 2.4 (4) | 0.5 (1) | 1.7 (3) | - | 2.7 (2) | 1.3 (10) | 5.6 (2) | - |
| 4) | 3.5 (32) | 3.0 (14) | 3.9 (18) | 4.9 (18) | 4.1 (7) | 1.0 (2) | 2.8 (5) | - | - | 3.8 (30) | 2.8 (1) | 14.3 (1) |
| 5) | 11.8 (109) | 11.0 (51) | 12.7 (58) | 12.5 (46) | 8.8 (15) | 14.8 (30) | 10.1 (18) | 12.5 (1) | 9.5 (7) | 12.1 (96) | 13.9 (50) | - |
| 6) | 5.4 (50) | 5.6 (26) | 5.3 (24) | 3.8 (14) | 1.2 (2) | 9.9 (20) | 7.8 (14) | - | 6.8 (5) | 5.2 (41) | 11.1 (4) | - |
| 7) | 0.7 (6) | 1.3 (6) | - | 0.3 (1) | - | 1.0 (2) | 1.7 (3) | - | - | 0.6 (5) | -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6 $\chi^2=9.61$ P=0.1420 | | df=18 $\chi^2=36.75$ P=0.0056 | | | | df=24 $\chi^2=43.92$ P=0.0077 | | | | |
| ☞ 답지내용 1)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2) 북한 동포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3)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4)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자기 욕심 때문에 5) 남북한이 서로 믿지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해서 6)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해서 7)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서 | | | | | | | | | | | | |

25) 김희, 앞의 논문, 36-40쪽.

욕심'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구체적인 응답율이 현재의 조사결과가 훨씬 높다. 그리고 '남북한이 믿지 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통일이 안되고 있다는 응답율도 현재가 훨씬 낮다. 이로 보아 아동들은 통일의 안되는 책임을 대부분 북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고, 거주지별로는 북제주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장애 요인으로 "남북한이 서로 믿지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해서"(14.8%) 및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강대국이 통일을 반대해서"(9.9%)라고 보는 응답율이 조금 높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와 '중간'의 아동들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가난'한 아동들은 예외적인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55.6%,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해서" 13.9%, "북한동포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및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해서"에 공히 11.1%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석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7) 통일의 방법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이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분하다. 특히 그것은 북한체제의 장래가 어떨 것인가와 관련이 깊은데, 이에 대한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조기붕괴론, 붕괴론, 현상유지론, 개혁·개방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²⁶⁾ 북한이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IMF체제의 한국적 상황은 통일의 시기와 형식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는 달리 <바람론>이나 <흡수통일>은 안한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은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점진적인 평화통일이라 할 것이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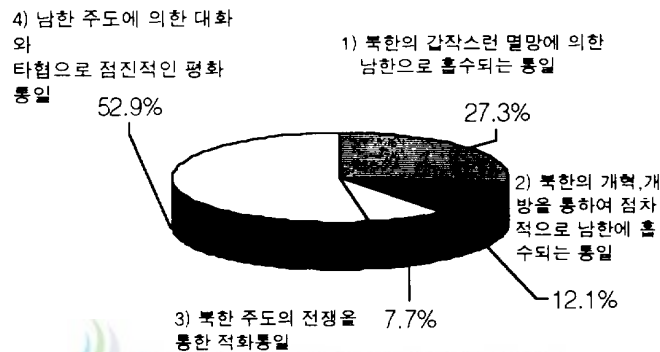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직으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26) 김용호·서동만·이근, "북한의 장래에 대한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분석", 『통일경제』, 통권 제37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1), 32-57쪽 참조.

27)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 참조.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아동들이 통일이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20번)라고 질문을 해 보았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 흡수되는 통일, ②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 ③ 북한 주도의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④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여러분은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52.9%),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 흡수되는 통일”(27.3%),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12.1%), “북한 주도의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7.7%)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한 아동들 나름의 인식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 결과는 앞서 〈표 15〉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표 15〉의 응답결과는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41.0%),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35.9%), “조금 어려울 것이다”(15.5%) 순이었다. 따라서 아동들 간에도 이제는 북한의 조기붕괴론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개혁·개방론이 점차 현실적 인식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7>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남자(50.6%)보다 여자아동들(55.4%)이 좀 더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쪽의 응답율이 높다. 반면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 흡수 통일"에 대한 응답율은 여자(25.6%)보다 남자(28.9%)가 약간 높다. 거주지별로도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남한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응답율은 북제주군(55.2%)과 남제주군(60.3%)이 조금 높고,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의 응답율은 제주시(50.1%)와 서귀포시(48.8%)가 조금 높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와 '중간'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나, '가난'한 아동들은 예외적으로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이 44.4%,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서의 흡수통일"은 33.3%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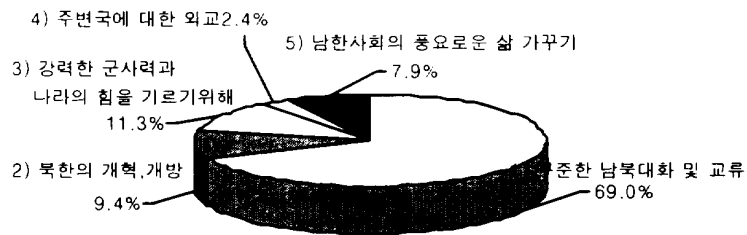
<표 17> 여러분은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27.3 (251) | 28.9 (134) | 25.6 (117) | 29.5 (109) | 31.8 (54) | 24.6 (50) | 21.2 (38) | 25.0 (2) | 29.7 (22) | 26.9 (214) | 33.3 (12) | 14.3 (1) |
| 2) | 12.1 (111) | 13.6 (63) | 10.5 (48) | 12.7 (47) | 12.4 (21) | 12.3 (25) | 10.1 (18) | - | 8.1 (6) | 12.4 (99) | 11.1 (4) | 28.6 (2) |
| 3) | 7.7 (71) | 6.9 (32) | 8.5 (39) | 7.6 (28) | 7.1 (12) | 7.9 (16) | 8.4 (15) | - | 10.8 (8) | 7.4 (59) | 11.1 (4) | - |
| 4) | 52.9 (488) | 50.6 (235) | 55.4 (253) | 50.1 (185) | 48.8 (83) | 55.2 (112) | 60.3 (108) | 75.0 (6) | 51.4 (38) | 53.3 (424) | 44.4 (16) | 57.1 (4)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5 $\chi^2 = 5.61$ P = 0.3452 | | df = 15 $\chi^2 = 14.48$ P = 0.4889 | | | | df = 20 $\chi^2 = 22.98$ P = 0.2895 | | | | |
| ☞ 답지내용 | | | | | | | | | | | | |
| 1)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 흡수되는 통일 | | | | | | | | | | | | |
| 2)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 | | | | | | | | | | | | |
| 3) 북한 주도의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 | | | | | | | | | | | |
| 4)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 | | | | | | | | | | | | |

8)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그러면 통일의 장애요인을 없애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1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 ② 북한의 개혁·개방, ③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 기르기, ④ 주변국에 대한 외교, ⑤ 남한사회의 풍요로운 삶 가꾸기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여러분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12〉에서와 같이, 절대다수인 69.0%가 “꾸준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들었고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 기르기”(11.3%), “북한의 개혁·개방”(9.4%), “남한사회의 풍요로운 삶 가꾸기”(7.9%)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다수의 아동들이 ‘남북 대화와 교류’를 꼽는 것은 위의 〈표 17〉의 통일방법에서 다수의 아동이 “남한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응답율이 높지는 않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 기르기”를 지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8〉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는 남녀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66.7%)와 남제주군(67.0%)보다 서귀포시(72.9%)와 북제주군(71.4%)이 조금 더 “남북 대화와 교류”를 지지하는 응답율이 높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와 ‘중간’의 아동들은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가난’한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에 대한 응답율이 낮고(55.6%),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 기르기”에 대한 응답율(22.2%)은 높다.

〈표 18〉 여러분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68.9 (635) | 69.6 (323) | 68.3 (312) | 66.7 (246) | 72.9 (124) | 71.4 (145) | 67.0 (120) | 87.5 (7) | 67.6 (50) | 70.0 (557) | 55.6 (20) | 14.3 (1) |
| 2) | 9.4 (87) | 10.8 (50) | 8.1 (37) | 11.1 (41) | 8.2 (14) | 7.9 (16) | 8.9 (16) | - | 12.2 (9) | 9.0 (72) | 8.3 (3) | 42.9 (3) |
| 3) | 11.3 (104) | 10.6 (49) | 12.0 (55) | 13.3 (49) | 12.4 (21) | 8.4 (17) | 9.5 (17) | - | 9.5 (7) | 10.9 (87) | 22.2 (8) | 28.6 (2) |
| 4) | 2.4 (22) | 2.2 (10) | 2.6 (12) | 2.2 (8) | 1.2 (2) | 3.9 (8) | 2.2 (4) | 12.5 (1) | - | 2.6 (21) | - | - |
| 5) | 7.9 (73) | 6.9 (32) | 9.0 (41) | 6.8 (25) | 5.3 (9) | 8.4 (17) | 12.3 (22) | - | 10.8 (8) | 7.4 (59) | 13.9 (5)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5 $\chi^2 = 5.99$ P = 0.3063 | | df = 15 $\chi^2 = 25.18$ P = 0.0475 | | | | df = 20 $\chi^2 = 93.95$ P = 0.0000 | | | | |
| ☞ 답지내용 1)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 2) 북한의 개혁·개방 3)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 기르기 4) 주변국에 대한 외교 5) 남한사회의 풍요로운 삶 가꾸기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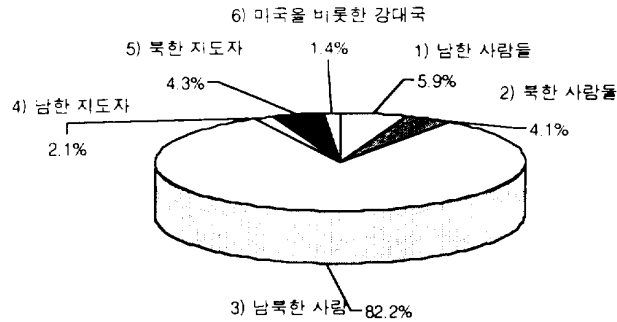
9) 통일노력의 주체

그러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통일노력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22번)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향으로는 ① 남한 사람들, ② 북한 사람들, ③ 남·북한 사람 모두, ④ 남한 지도자, ⑤ 북한 지도자, ⑥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13>에서 보듯이, 절대다수인 82.2%의 아동들이 “남·북한 사람 모두”를 지지하였다. 93년 金姬도 똑같은 질문을 조사하였는데, 그때는 “남·북한 사람 모두”에 91.7%의 응답율을 보였다.²⁸⁾ 비교해 볼 때, 응답율이 거의 10%정도가 떨어진 것이지만, 대신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통일의 주체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응답율이 조금 높아졌다(5.9%)는 점은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해야 하지만, 그 중에도 역사 통일의 주도권은 남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28) 김희, 앞의 논문, 31-35쪽.

〈그림 13〉 여러분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표 19〉 여러분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5.9 (54) | 5.4 (25) | 6.3 (29) | 5.4 (20) | 7.1 (12) | 4.9 (10) | 6.7 (12) | 25.0 (2) | 4.1 (3) | 5.5 (44) | 8.3 (3) | 28.6 (2) |
| 2) | 4.1 (38) | 3.7 (17) | 4.6 (21) | 3.5 (13) | 7.1 (12) | 2.0 (4) | 5.0 (9) | - | 4.1 (3) | 4.3 (34) | 2.8 (1) | - |
| 3) | 82.2 (757) | 83.2 (386) | 81.2 (371) | 83.7 (309) | 79.4 (135) | 86.7 (176) | 76.5 (137) | 75.0 (6) | 89.2 (66) | 81.8 (651) | 83.3 (30) | 57.1 (4) |
| 4) | 2.1 (19) | 1.9 (9) | 2.2 (10) | 1.1 (4) | 2.4 (4) | 2.5 (5) | 3.4 (6) | - | - | 2.3 (18) | 2.8 (1) | - |
| 5) | 4.3 (40) | 3.4 (16) | 5.3 (24) | 5.1 (19) | 2.4 (4) | 2.5 (5) | 6.7 (12) | - | 2.7 (2) | 4.5 (36) | 2.8 (1) | 14.3 (1) |
| 6) | 1.4 (13) | 2.4 (11) | 0.4 (2) | 1.1 (4) | 1.8 (3) | 1.5 (3) | 1.7 (3) | - | - | 1.6 (13) | -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5 $\chi^2 = 8.84$ P = 0.1154 | | df = 15 $\chi^2 = 18.99$ P = 0.2141 | | | | df = 20 $\chi^2 = 20.74$ P = 0.4125 | | | | |
| ☛ 답지내용 1) 남한 사람들 2) 북한 사람들 3) 남·북한 사람 모두 4) 남한 지도자 5) 북한 지도자 6)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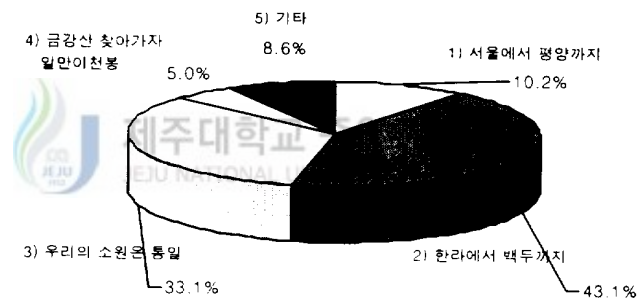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19〉에서 보듯이 성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여자(81.2%)보다 남자(83.2%)가 통일의 주체로 '남·북 사람 모두'에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79.4%)와 남제주군(76.5%)보다는 북제주군(86.7%)과 제주

시(83.7%)가, 생활수준별로는 '가난'(83.3%)과 '중간'(81.8%)의 아동들보다 '부유'한 아동들이 '남·북사람 모두'에 좀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 통일 글짓기의 주제

이 질문은 앞의 <표 12>의 "통일하면 떠오르는 산"의 질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먼저본 것으로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통일과 관련하여 글짓기를 한다면 다음 중 어느 주제로 글을 쓰겠습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45번)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서울에서 평양까지, ② 한라에서 백두까지, ③ 우리의 소원은 통일, ④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⑤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만약 여러분이 통일과 관련하여 글짓기를 한다면 다음 중 어느 주제로 글을 쓰겠습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 ()란에 직접 써 주세요.



그 결과 <그림 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43.1%), "우리의 소원은 통일"(33.1%), "서울에서 평양까지"(10.2%) 순으로 반응하였다. <표 12>에서 질문하였던 것과는 달리²⁹⁾, 여기서는 남북국토의 완전한 통일을 상징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통일 글짓기 주제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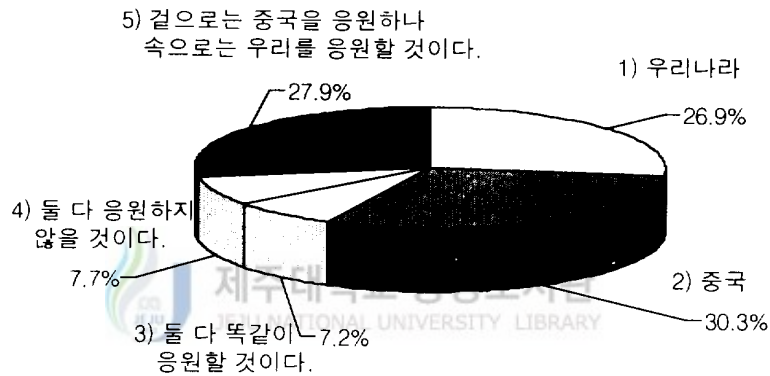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는 <표 20>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48.3%)를, 여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38.7%)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거주지

29) "통일하면 떠오르는 산"에 대한 질문에서는 '백두산'과 '금강산'이 가장 많은 응답율을 차지하였다.

1) 운동경기시 북한사람들의 응원팀

앞의 <표 7>의 경우가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할 때 피조사자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겠는가를 묻는 것이었다면, 이번의 질문은 한국과 중국이 운동경기를 할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이라고 보는가를 묻는 것이다. 질문은 "우리 나라와 중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누구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13번)라 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은 ① 우리 나라, ② 중국, ③ 둘 다 똑같이 응원할 것이다, ④ 둘 다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⑤ 겹으로는 중국을 응원하나 속으로는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5> 우리 나라와 중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누구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15>에 나타나는 것처럼, 근소한 차이지만 "중국"(30.0%), "겹으로는 중국을 응원하나 속으로는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27.9%), "우리 나라"(26.9%) 순으로 반응하였다. 중국이 일순위로 선택된 것은 북한의 우방국이라는 것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응원할 것으로 보는 응답율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4.8%). 이는 <표 7>에서 미국과 북한이 운동경기시 우리가 "북한"(41.0%)을 응원해 주듯이,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경기할 때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응원해 줄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일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중국을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남자(31.9%)가 좀 더 많고, 우리나라를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여자(28.4%)가 좀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 거주지별로는 중국을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서귀포시(34.7%)와 남제주군(34.1%)이 좀 더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수준별에서는 가난한 아동들에서 중국을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율(38.9%)이 조금 더 높고, 드러내고 우리나라를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율도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우리 나라와 중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누구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26.9 (248) | 25.4 (118) | 28.4 (130) | 26.8 (99) | 28.8 (49) | 27.1 (55) | 25.1 (45) | 25.0 (2) | 27.0 (20) | 26.9 (214) | 30.6 (11) | 14.3 (1) |
| 2) | 30.3 (279) | 31.9 (148) | 28.7 (131) | 28.2 (104) | 34.7 (59) | 27.1 (55) | 34.1 (61) | 37.5 (3) | 33.8 (25) | 29.6 (236) | 38.9 (14) | 14.3 (1) |
| 3) | 7.2 (66) | 7.5 (35) | 6.8 (31) | 6.5 (24) | 6.5 (11) | 9.4 (19) | 6.7 (12) | - | 8.1 (6) | 7.2 (57) | 5.6 (2) | 14.3 (1) |
| 4) | 7.7 (71) | 7.1 (33) | 8.3 (38) | 7.3 (27) | 5.9 (10) | 9.9 (20) | 7.8 (14) | - | 10.8 (8) | 7.2 (57) | 8.3 (3) | 42.9 (3) |
| 5) | 27.9 (257) | 28.0 (130) | 27.8 (127) | 31.2 (115) | 24.1 (41) | 26.6 (54) | 26.3 (47) | 37.5 (3) | 20.3 (15) | 29.1 (232) | 16.7 (6)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 = 4 $\chi^2 = 2.19$ P = 0.7003 | df = 12 $\chi^2 = 9.96$ P = 0.6189 | | df = 16 $\chi^2 = 21.33$ P = 0.1658 | | | | | | | | |
| ◀ 답지내용 1) 우리나라 2) 중국 3) 둘 다 똑같이 응원할 것이다. 4) 둘 다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5) 겉으로는 중국을 응원하나 속으로는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 | | | | | | | | | | | | |

2)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

이 질문은 앞의 〈표 12〉의 “통일하면 떠오르는 산”의 질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깊은 생각없이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을 대답해 보도록 하는 정의적 영역의 질문이다. 질문은 “북한!하면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골라 보세요.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23번)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김일성·김정일, ② 백두산, ③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④ 한겨레, ⑤ 공산당, ⑥ 인민군대, ⑦ 핵무기, ⑧ 어

색한 말투, 9 간첩, 10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59.8%), “김일성·김정일”(42.6%), “백두산”(29.2%), “한겨레”(15.0%), “공산당”(14.7%) 순으로 반응하였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이 일순위의 응답율로 나타난 것은 아마도 최근 북한의 쌀사정과 굶주림의 실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겨레’를 떠올리는 응답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떠올릴 때 같은 동포로서의 연민과 사랑

<표 22> ‘북한!’하면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골라 보세요.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8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392 (42.6) | 198 (42.7) | 194 (42.5) | 174 (47.2) | 71 (41.8) | 81 (39.9) | 67 (37.4) | 3 (37.5) | 20 (27.0) | 351 (44.1) | 25 (69.4) | 4 (57.1) |
| 2) | 296 (29.2) | 150 (32.3) | 146 (31.9) | 135 (36.6) | 54 (31.8) | 67 (33.0) | 59 (33.0) | 1 (12.5) | 23 (31.1) | 234 (29.4) | 11 (30.6) | - |
| 3) | 551 (59.8) | 255 (55.0) | 296 (64.8) | 189 (51.2) | 105 (61.8) | 130 (64.0) | 97 (54.2) | 4 (50.0) | 57 (77.0) | 458 (53.8) | 22 (61.1) | 5 (71.4) |
| 4) | 138 (15.0) | 65 (14.0) | 73 (16.0) | 41 (11.1) | 20 (11.8) | 33 (16.3) | 45 (25.1) | 1 (12.5) | 10 (13.5) | 131 (16.5) | 3 (8.3) | 1 (14.3) |
| 5) | 135 (14.7) | 72 (15.5) | 63 (13.8) | 63 (17.1) | 24 (14.1) | 30 (14.8) | 26 (14.5) | 3 (37.5) | 7 (9.5) | 132 (16.6) | 3 (8.3) | - |
| 6) | 22 (2.4) | 15 (3.5) | 7 (1.5) | 11 (3.0) | 5 (2.9) | 5 (2.5) | 8 (4.5) | - | 4 (5.4) | 44 (5.5) | 1 (2.8) | - |
| 7) | 77 (8.4) | 51 (11.0) | 26 (5.7) | 34 (9.2) | 17 (10.0) | 15 (7.4) | 15 (8.4) | - | 13 (17.6) | 67 (8.4) | 1 (2.8) | - |
| 8) | 55 (6.0) | 29 (6.3) | 26 (5.7) | 31 (8.4) | 3 (1.8) | 7 (3.4) | 17 (9.5) | - | 2 (2.7) | 41 (5.2) | 2 (5.6) | - |
| 9) | 153 (16.6) | 98 (21.1) | 55 (12.0) | 53 (14.4) | 36 (21.2) | 34 (16.7) | 18 (10.1) | 4 (50.0) | 9 (12.2) | 110 (13.8) | 3 (8.3) | 3 (42.9) |
| 10) | 23 (2.5) | 12 (2.6) | 11 (2.4) | 7 (1.9) | 5 (2.9) | 4 (2.0) | 6 (3.4) | - | 3 (4.1) | 24 (3.0) | 1 (2.8) | 1 (14.3)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8 $\chi^2=24.54$ P=0.0018 | df=24 $\chi^2=48.97$ P=0.0019 | | df=32 $\chi^2=19.01$ P=0.9662 | | | | | | | | |
| ✎ 답지내용 1) 김일성·김정일 2) 백두산 3)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4) 한겨레 5) 공산당 6) 인민군대 7) 핵무기 8) 어색한 말투 9) 간첩 10) 기타()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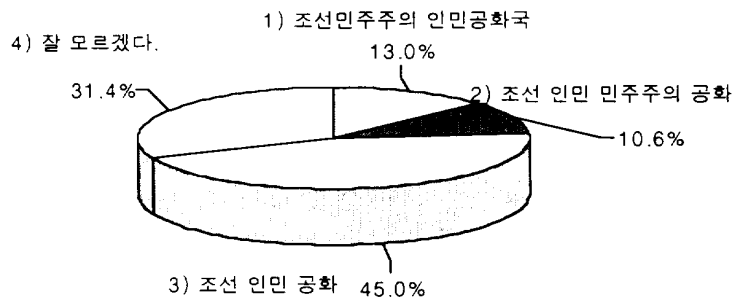
의 정이 포함된 것인지는 궁금하다. 최근의 북한실정이 아니라면 북한의 상징성은 김일성·김정일인 것 같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떠올리는 것이 성별에서는 여자아동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많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54.2%)과 제주시(51.2%)보다는 북제주군(64.0%)과 서귀포시(61.8%)가 좀 더 많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부유’에서 ‘가난’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응답을 순위가 역전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아동들은 “김일성·김정일”(69.4%),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61.1%), “백두산”(30.6%)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가난한 아동들에게는 북한의 가난이 뉴스거리가 못된다는 것을 넉넉히 알려준다.

3) 북한의 공식명칭

북한의 공식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남한)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공식 이름은 무엇입니까?(24번)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②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③ 조선 인민 공화국, ④ 잘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6> 우리 나라(남한)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공식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 <그림 16>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인민 공화국”(45.0%), “잘 모르겠다”(31.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13.0%),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10.6%) 순으로 반응하였

다. 13.0%의 아동들만이 북한 공식명칭을 알고 있고, 87.0%라는 절대다수의 아동들이 북한의 공식이름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공식이름을 안쓰고 그냥 '북한'이라고만 지칭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유의차는 없지만 남자(11.9%)보다 여자(14.2%) 아동들이, 거주지별로는 제주시(12.2%)와 남제주군(10.1%)보다 북제주군(15.8%)과 서귀포시(14.7%)가 좀더 북한의 공식명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17.6%)한 집안의 아동들이 중간(12.8%)과 가난(11.1%)한 아동들보다 좀 더 북한의 공식이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표 23> 우리 나라(남한)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공식이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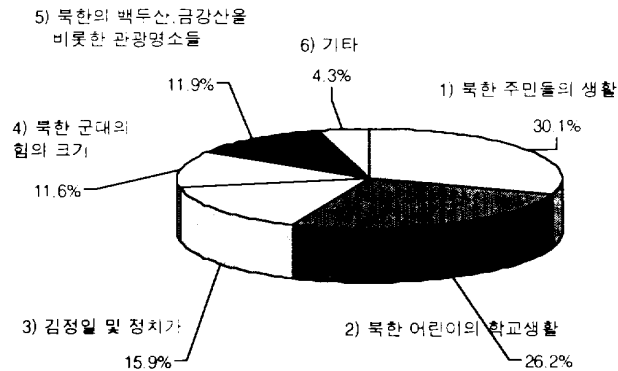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13.0 (120) | 11.9 (55) | 14.2 (65) | 12.2 (45) | 14.7 (25) | 15.8 (32) | 10.1 (18) | 12.5 (1) | 17.6 (13) | 12.8 (102) | 11.1 (4) | - |
| 2) | 10.6 (98) | 9.7 (45) | 11.6 (53) | 9.8 (36) | 12.4 (21) | 9.4 (19) | 12.3 (22) | 25.0 (2) | 10.8 (8) | 10.2 (81) | 19.4 (7) | - |
| 3) | 45.0 (414) | 49.1 (228) | 40.7 (186) | 47.4 (175) | 47.6 (81) | 35.0 (71) | 48.6 (87) | 50.0 (4) | 43.2 (32) | 45.5 (362) | 33.3 (12) | 57.1 (4) |
| 4) | 31.4 (289) | 29.3 (136) | 33.5 (153) | 30.6 (113) | 25.3 (43) | 39.9 (81) | 29.1 (52) | 12.5 (1) | 28.4 (21) | 31.5 (251) | 36.1 (13) | 42.9 (3)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5 $\chi^2 = 8.51$ P = 0.1302 | | df = 15 $\chi^2 = 25.37$ P = 0.0451 | | | | df = 20 $\chi^2 = 23.01$ P = 0.2882 | | | | |
| ☛ 답지내용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2)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3) 조선 인민 공화국 4)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4) 북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북한에 대한 아동들의 특정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25번) 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북한 주민들의 생활, ②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3) 김정일 및 정치가들의 생활, 4)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 5) 북한의 백두산·금강산을 비롯한 관광명소들, 6) 기타 등을 제시했다.

〈그림 17〉 여러분이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그 결과 〈그림 17〉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생활”(30.1%),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26.2%), “김정일 및 정치가들의 생활”(15.9%)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93년 김희에 의해서도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55.0%), “북한 주민들의 생활”(21.6%),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9.6%) 순이었다.³⁰⁾ 93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그 응답을 순위와 내용이 다르다. 이번의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아동들이 알고 싶은 1순위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역시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과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및 정치가들의 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도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북한의 실권자로 등장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과 비롯한 또래들에서 주 생활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은 아동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궁금사항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남자(27.6%)보다 여자(32.6%) 아동들이 좀 더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는 〈표 22〉에서 북한하면

30) 김희, 앞의 논문, 46-50쪽.

떠오르는 것으로 “꿇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선택한 이가 남자보다 여자아동들이 더 많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보다 제주시의 아동들이 좀 더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한다 (33.6%). 생활수준별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하는 순위가 가난(41.7%), 중간(30.3%), 부유(2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

〈표 24〉 여러분이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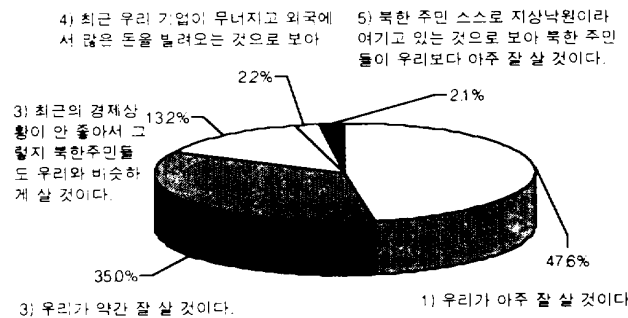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30.1 (277) | 27.6 (128) | 32.6 (149) | 33.6 (124) | 27.1 (46) | 28.1 (57) | 27.9 (50) | 25.0 (2) | 24.3 (18) | 30.3 (241) | 41.7 (15) | 14.3 (1) |
| 2) | 26.2 (241) | 22.0 (102) | 30.4 (139) | 22.8 (84) | 31.2 (53) | 28.6 (58) | 25.7 (46) | 25.0 (2) | 21.6 (16) | 26.8 (213) | 22.2 (8) | 28.6 (2) |
| 3) | 15.9 (146) | 14.2 (66) | 17.5 (80) | 14.4 (53) | 17.6 (30) | 16.7 (34) | 16.2 (29) | 50.0 (4) | 21.6 (16) | 15.2 (121) | 8.3 (3) | 28.6 (2) |
| 4) | 11.6 (107) | 15.5 (72) | 7.7 (35) | 14.1 (52) | 10.6 (18) | 9.4 (19) | 10.1 (18) | - | 17.6 (13) | 11.6 (92) | 5.6 (2) | - |
| 5) | 11.9 (110) | 15.3 (71) | 8.5 (39) | 10.3 (38) | 10.6 (18) | 12.3 (25) | 16.2 (29) | 9.5 (7) | 11.8 (94) | 19.4 (7) | 28.6 (2) | |
| 6) | 4.3 (40) | 5.4 (25) | 3.3 (15) | 4.9 (18) | 2.9 (5) | 4.9 (10) | 3.9 (7) | - | 5.4 (4) | 4.4 (35) | 2.8 (1)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5 $\chi^2=33.16$ P=0.0000 | | df=15 $\chi^2=15.74$ P=0.3993 | | | | df=20 $\chi^2=24.51$ P=0.2207 | | | | |
| ☞ 답지내용 1) 북한 주민들의 생활 2)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3) 김정일 및 정치가들의 생활 4)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 5) 북한의 백두산·금강산을 비롯한 관광명소들 6) 기타() | | | | | | | | | | | | |

5) 북한의 주민생활 수준

위에서 북한에 대해 아동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었는데, 그렇다면 아동들은 북한의 주민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어떠 하리라고 생각합니까?”(26번)

라고 질문을 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1)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 2)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 3) 최근의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살 것이다. 4) 최근 우리 기업이 무너지고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려오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더 잘 살 것이다. 5) 북한 주민 스스로 지상낙원이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이 우리보다 아주 잘 살 것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8〉 우리 나라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18〉에서 보는 바처럼,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47.6%),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35.0%), “최근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살 것이다”(13.2%) 순으로 응답하였다. 82.6%나 되는 절대 다수의 아동들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5.0%나 되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라는 데 지지한 것은 아마도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반대로 북한이 우리보다 잘 못살 것이라고 보는 데는 최근의 북한경제의 추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5〉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남학생들은 반이상이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살 것라는 데 동의하는 반면(57.3%), 여학생들은 ‘우리가 북한보다 약간 잘 살 것이다’라는 데 좀 더 동의하고 있다(41.6%). 거주지별로는 유의미한 차가 없어 보인다. 생활수준별로는 또한번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율은 부유(62.2%), 중간(47.1), 가난(3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

의 경우에는 가난(38.9%), 중간(35.1%), 부유(28.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가난한 아동들은 북한이 우리와 비슷하게 살 것이라고 보는 응답율도 비교적 높다(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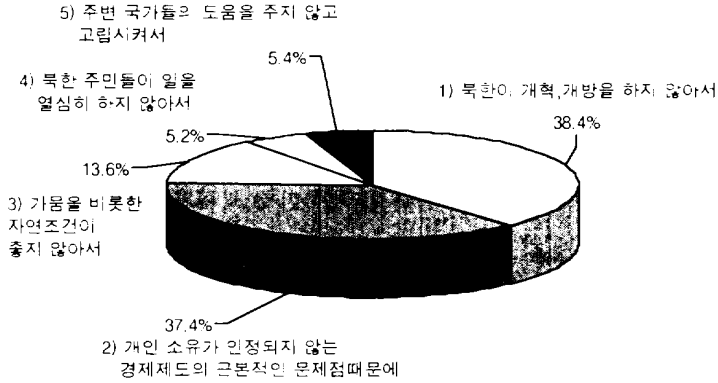
<표 25> 우리 나라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생활수준별 |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30.1 (277) | 27.6 (128) | 32.6 (149) | 33.6 (124) | 27.1 (46) | 28.1 (57) | 27.9 (50) | 25.0 (2) | 24.3 (18) | 30.3 (241) | 41.7 (15) | 14.3 (1) |
| 2) | 26.2 (241) | 22.0 (102) | 30.4 (139) | 22.8 (84) | 31.2 (53) | 28.6 (58) | 25.7 (46) | 25.0 (2) | 21.6 (16) | 26.8 (213) | 22.2 (8) | 28.6 (2) |
| 3) | 15.9 (146) | 14.2 (66) | 17.5 (80) | 14.4 (53) | 17.6 (30) | 16.7 (34) | 16.2 (29) | 50.0 (4) | 21.6 (16) | 15.2 (121) | 8.3 (3) | 28.6 (2) |
| 4) | 11.6 (107) | 15.5 (72) | 7.7 (35) | 14.1 (52) | 10.6 (18) | 9.4 (19) | 10.1 (18) | - | 17.6 (13) | 11.6 (92) | 5.6 (2) | - |
| 5) | 11.9 (110) | 15.3 (71) | 8.5 (39) | 10.3 (38) | 10.6 (18) | 12.3 (25) | 16.2 (29) | - | 9.5 (7) | 11.8 (94) | 19.4 (7) | 28.6 (2) |
| 6) | 4.3 (40) | 5.4 (25) | 3.3 (15) | 4.9 (18) | 2.9 (5) | 4.9 (10) | 3.9 (7) | - | 5.4 (4) | 4.4 (35) | 2.8 (1)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5 $\bar{x} = 33.16$ P = 0.0000 | | df = 15 $\bar{x} = 15.74$ P = 0.3993 | | | | df = 20 $\bar{x} = 24.51$ P = 0.2207 | | | | |
| ◀ 답지내용 1) 북한 주민들의 생활 2)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3) 김정일 및 정치가들의 생활 4)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 5) 북한의 백두산·금강산을 비롯한 관광명소들 6) 기타() | | | | | | | | | | | | |

6)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

최근 북한경제는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아동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27번)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향으로는 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②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제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③ 가뭄을 비롯한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서, ④ 북한 주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⑤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주지 않고 고립을 시켜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19〉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표 26〉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38.4 (354) | 39.0 (181) | 37.9 (173) | 38.5 (142) | 42.4 (72) | 38.4 (78) | 34.6 (62) | 25.0 (2) | 41.9 (31) | 38.7 (308) | 30.6 (11) | 28.6 (2) |
| 2) | 37.4 (344) | 32.1 (149) | 42.7 (195) | 41.2 (152) | 36.5 (62) | 34.5 (70) | 33.5 (60) | 50.0 (4) | 39.2 (29) | 36.9 (294) | 38.9 (14) | 42.9 (3) |
| 3) | 13.6 (125) | 17.7 (82) | 9.4 (43) | 10.3 (38) | 15.3 (26) | 15.8 (32) | 16.2 (29) | 12.5 (1) | 9.5 (7) | 14.3 (114) | 5.6 (2) | 14.3 (1) |
| 4) | 5.2 (48) | 5.6 (26) | 4.8 (22) | 4.3 (16) | 3.5 (6) | 6.4 (13) | 7.3 (13) | 12.5 (1) | 2.7 (2) | 4.8 (38) | 16.7 (6) | 14.3 (1) |
| 5) | 5.4 (50) | 5.6 (26) | 5.3 (24) | 5.7 (21) | 2.4 (4) | 4.9 (10) | 8.4 (15) | - | 6.8 (5) | 5.3 (42) | 8.3 (3)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8.86$ P = 0.0008 | | df = 12 $\chi^2 = 18.34$ P = 0.1054 | | | | df = 16 $\chi^2 = 18.68$ P = 0.2850 | | | | |
| ☞ 답지내용 | | | | | | | | | | | | |
| 1)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2)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3) 가뭄을 비롯한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서 4) 북한 주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5)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주지 않고 고립을 시켜서 | | | | | | | | | | | | |

그 결과 〈그림 19〉에서 보듯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38.4%), “개인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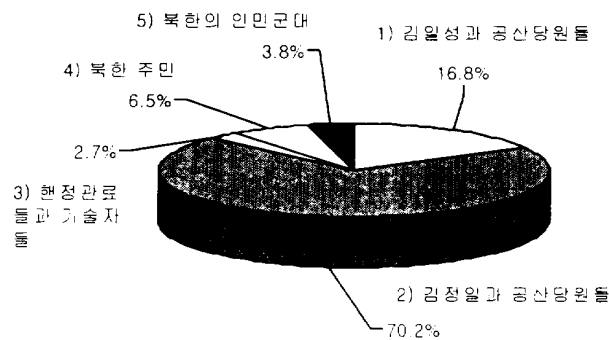
가 인정되지 않는 경제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37.4%), “가뭄을 비롯한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서”(13.6%) 순으로 반응하였다. 75.8%라는 절대 다수의 아동들이 북한의 경제체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39.0%), 여자들은 ‘북한경제체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들고 있다(42.7%). 거주지별로는 제주도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으로 ‘북한경제 체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나머지 지역 아동들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데’에 좀 더 높은 선택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아니다. 생활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16.7%의 가난한 아동들이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으로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보는 것은 조금 색다른 측면이다.

7) 북한의 지도자

북한의 현실적 지도자에 대해 아동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28번)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김일성과 공산당원들, ② 김정일과 공산당원들, ③ 행정관료들과 기술자들, ④ 북한 주민들 모두, ⑤ 북한의 인민군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0>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표 27〉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결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16.8 (155) | 15.9 (74) | 17.7 (81) | 14.6 (54) | 24.1 (41) | 13.3 (27) | 18.4 (33) | - | 12.2 (9) | 17.3 (138) | 22.2 (8) | - |
| 2) | 70.1 (646) | 72.6 (337) | 67.6 (309) | 71.8 (265) | 61.8 (105) | 76.4 (155) | 67.6 (121) | 62.5 (5) | 73.0 (54) | 70.5 (561) | 55.6 (20) | 85.7 (6) |
| 3) | 2.7 (25) | 2.4 (11) | 3.1 (14) | 1.9 (7) | 2.9 (5) | 4.4 (9) | 2.2 (4) | - | - | 2.9 (23) | 5.6 (2) | - |
| 4) | 6.5 (60) | 5.2 (24) | 7.9 (36) | 7.9 (29) | 7.6 (13) | 3.4 (7) | 6.1 (11) | 37.5 (3) | 8.1 (6) | 6.0 (48) | 8.3 (3) | - |
| 5) | 3.8 (35) | 3.9 (18) | 3.7 (17) | 3.8 (14) | 3.5 (6) | 2.5 (5) | 5.6 (10) | - | 6.8 (5) | 3.3 (26) | 8.3 (3)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 = 5 $\chi^2 = 5.18$ P = 0.3940 | | df = 15 $\chi^2 = 25.67$ P = 0.0415 | | | | df = 20 $\chi^2 = 29.02$ P = 0.0871 | | | | | |
| ▣ 답지내용 1) 김일성과 공산당원들 2) 김정일과 공산당원들 3) 행정관료들과 기술자들 4) 북한 주민들 모두 5) 북한의 인민군대 | | | | | | | | | | | | |

그 결과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2%라는 절대 다수의 아동들이 “김정일과 공산당원들”이라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16.8%의 아동들이 “김일성과 공산당원들”을 답으로 선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아동들의 평소 관심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배경변인별로는, <표 27>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여자(67.6%)보다 남자(72.6%) 아동들이 약간 더 제대로 알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67.6%)과 서귀포시(61.8%)보다 북제주군(76.4%)과 제주시(71.8%)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73.0%), 중간(70.5%), 가난(55.6%) 순으로 제대로 알고 있다. 역시 가난한 아동들이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국가 및 안보에 대한 의식(국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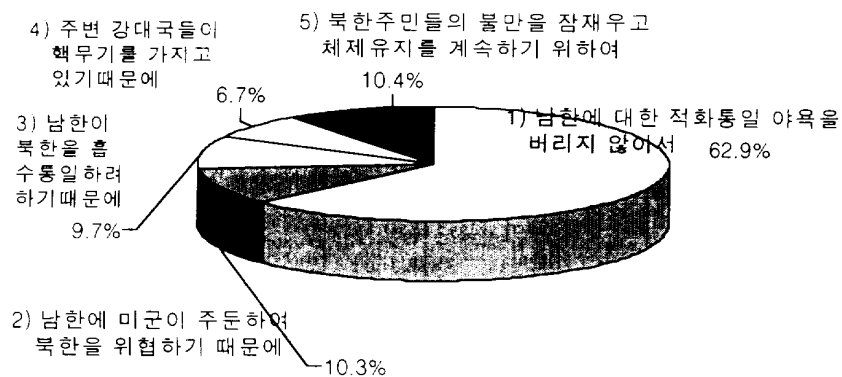
국가 및 안보에 대한 의식에서는 주로 ① 북한의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는 통일노력을 해야 하는가, ③ 만약 북한이 무력침략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④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노력을 계속해야 하는가, ⑤ 안보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등을 질문해 보았다. 이들 각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의 이유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는 이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잠수함 및 간첩을 침투시키는 등 계속해서 군사적인 무력도발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29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아서, ②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③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하기 때문에, ④ 주변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⑤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유지를 계속하기 위하여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잠수함 및 간첩을 침투시키는 등 계속해서 군사적인 무력도발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21>에서 보듯이, 62.9%의 대다수 아동들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답하고 있다. 그외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유지를 계속하기 위하여”(10.4%),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10.3%),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하기 때문에”(9.7%) 순으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대한 통일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20.0%의 어린이가 북한의 무력도발의 원인을 남한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28〉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잠수함 및 간첩을 침투시키는 등 계속해서 군사적 인 무력도발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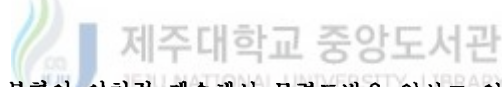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62.9 (579) | 62.5 (290) | 63.2 (289) | 66.7 (246) | 54.7 (93) | 64.5 (131) | 60.9 (109) | 75.0 (6) | 67.6 (50) | 62.9 (501) | 44.4 (16) | 85.7 (6) |
| 2) | 10.3 (95) | 11.0 (51) | 9.6 (44) | 8.9 (33) | 12.9 (22) | 10.3 (21) | 10.6 (19) | - | 6.8 (5) | 10.7 (85) | 13.9 (5) | - |
| 3) | 9.7 (89) | 9.9 (46) | 9.4 (43) | 7.6 (28) | 14.1 (24) | 7.9 (16) | 11.7 (21) | 12.5 (1) | 9.5 (7) | 9.4 (75) | 16.7 (6) | - |
| 4) | 6.7 (62) | 4.5 (21) | 9.0 (41) | 5.7 (21) | 10.0 (17) | 5.9 (12) | 6.7 (12) | 2.7 (2) | 2.7 (2) | 7.3 (58) | 2.8 (1) | 14.3 (1) |
| 5) | 10.4 (96) | 12.1 (56) | 8.8 (40) | 11.1 (41) | 8.2 (14) | 11.3 (23) | 10.1 (18) | 12.5 (1) | 13.5 (10) | 9.7 (77) | 22.2 (8)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9.68$ P = 0.0461 | | df = 12 $\chi^2 = 15.89$ P = 0.1961 | | | | df = 16 $\chi^2 = 19.39$ P = 0.2488 | | | | |
| ◀ 답지내용 1)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아서 2)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3)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하기 때문에 4) 주변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유지를 계속하기 위하여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8>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여학생들 중에 9.0%가 북한도발의 원인을 “주변강대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서 찾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서귀포시의 경우 북한도발의 원인을 남한에서 찾는 비율이 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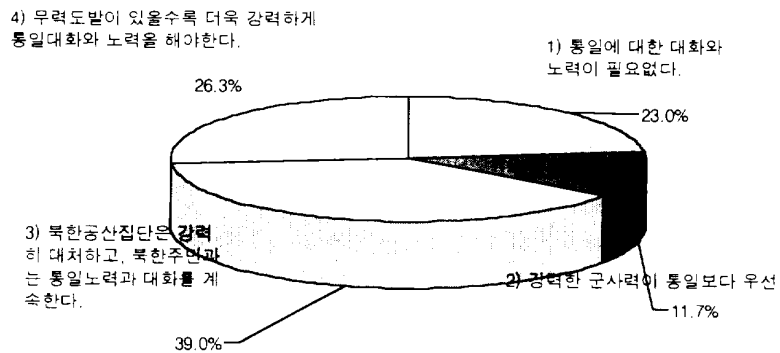
즉 14.1%의 아동들이 “남한의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하기 때문”을 꼽고 있고, 12.9%의 아동들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을 꼽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가난한 집안의 아동들에서 북한도발의 원인을 남한에서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즉 16.7%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하기 때문”을, 13.9%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을 선택하고 있다.

2)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통일노력은 해야 하는가?

질문의 의도는 아동들이 통일문제와 안보문제를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안보문제는 국제적 문제로서 이에겐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내적 문제로서 안보문제와 분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어찌든 이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들과 통일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30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향으로는 ① 통일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②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③ 무력도발을 일삼는 자들은 북한공산집단이기 때문에 그



〈그림 22〉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들과 통일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하나, 선량한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요 통일의 대상이기에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④ 북한이 무력도발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통일 대화와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2>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공산집단은 강력히 대처하고, 북한주민과는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한다”(39.0%), “무력도발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통일 대화와 노력을 해야 한다”(26.3%), “통일에 대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없다”(23.0%)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조사자의 질문의도대로 해석한다면, 39.0%의 아동들만이 통일문제와 안보문제의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65.3%의 아동들이 통일 대화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표 29>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들과 통일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23.0 (212) | 23.5 (109) | 22.5 (103) | 23.6 (87) | 27.6 (47) | 19.7 (40) | 21.2 (38) | 12.5 (1) | 28.4 (21) | 23.2 (185) | 11.1 (4) | 14.3 (1) |
| 2) | 11.7 (108) | 10.1 (47) | 13.3 (61) | 12.2 (45) | 13.5 (23) | 10.8 (22) | 10.1 (18) | 12.5 (1) | 10.8 (8) | 11.7 (93) | 16.7 (6) | - |
| 3) | 39.0 (359) | 40.5 (188) | 37.4 (171) | 39.8 (147) | 32.4 (55) | 42.9 (87) | 39.1 (70) | 37.5 (3) | 33.8 (25) | 39.1 (311) | 44.4 (16) | 57.1 (4) |
| 4) | 26.3 (242) | 25.9 (120) | 26.7 (122) | 24.4 (90) | 26.5 (45) | 26.6 (54) | 29.6 (53) | 37.5 (3) | 27.0 (20) | 26.0 (207) | 27.8 (10) | 28.6 (2)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6.66$ P = 0.1547 | | df = 12 $\chi^2 = 13.15$ P = 0.3580 | | | | df = 16 $\chi^2 = 14.07$ P = 0.5929 | | | | |
| ◀ 답지내용 1) 통일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3) 무력도발을 일삼는 자들은 북한공산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하나, 선량한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요 통일의 대상이기에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4) 북한이 무력도발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통일 대화와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29>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여자(37.4%)보다 남자(40.5%) 아동들이 좀 더 통일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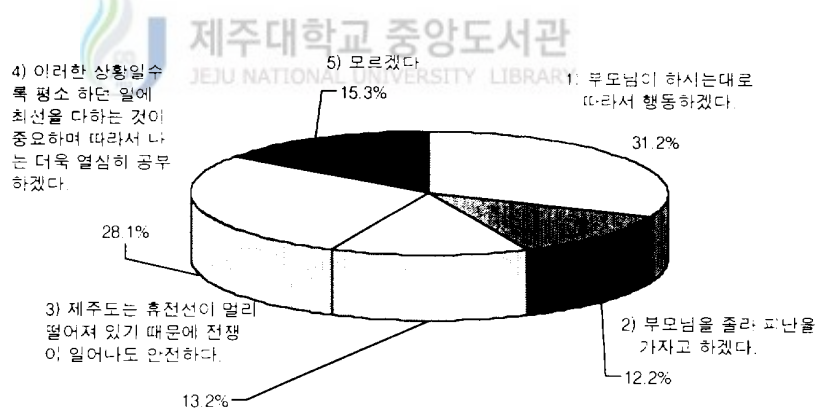
거주지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아동들은 “통일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없다”고 간주하는 아동이 좀 더 많다(27.6%). 생활수준별로는 “북한공산집단을 강력히 대처하고,

북한주민과는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가난(44.4%), 중간(39.1%), 부유(33.8%)순으로, 그리고 “통일노력과 대화가 필요없다”는 응답율은 역순인 부유(28.4%), 중간(23.2%), 가난(11.1%)로 나타나 주목된다.

3) 전쟁발발시 태도

만약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북한이 무력침략을 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31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은 ①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겠다. ② 부모님을 줄라 피난을 가자고 하겠다. ③ 제주도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다. ④ 이러한 상황일수록 평소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 ⑤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3〉 만약 북한이 무력침략을 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겠다”(31.2%), “이러한 상황일수록 평소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28.1%), “모르겠다”(15.3%), “제주도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

이 일어나도 안전하다”(13.2%), “부모님을 졸라 피난을 가자고 하겠다”(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정확한 자기 태도를 밝힌 아동들은 28.1%에 불과하고 46.5%는 부모님 말씀에 따르거나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비율이지만 13.2%의 아동들은 제주도가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30〉 만약 북한이 무력침략을 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31.2 (287) | 31.5 (146) | 30.9 (141) | 29.0 (107) | 30.6 (52) | 28.1 (57) | 39.7 (71) | 12.5 (1) | 31.1 (23) | 31.4 (250) | 22.2 (8) | 71.4 (5) |
| 2) | 12.2 (112) | 13.6 (63) | 10.7 (49) | 13.0 (48) | 12.4 (21) | 10.8 (22) | 11.7 (21) | 25.0 (2) | 13.5 (10) | 11.8 (94) | 16.7 (6) | - |
| 3) | 13.2 (122) | 10.8 (50) | 15.8 (72) | 12.2 (45) | 19.4 (33) | 13.3 (27) | 9.5 (17) | - | 14.9 (11) | 13.2 (105) | 16.7 (6) | - |
| 4) | 28.1 (259) | 29.7 (138) | 26.5 (121) | 31.4 (116) | 22.9 (39) | 25.6 (52) | 29.1 (52) | 37.5 (3) | 27.0 (20) | 28.1 (224) | 33.3 (12) | - |
| 5) | 15.3 (141) | 14.4 (67) | 16.2 (74) | 14.4 (53) | 14.7 (25) | 22.2 (45) | 10.1 (18) | 25.0 (2) | 13.5 (10) | 15.5 (123) | 11.1 (4) | 28.6 (2)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 = 4 $\chi^2 = 7.21$ P = 0.1249 | | df = 12 $\chi^2 = 26.25$ P = 0.0098 | | | | df = 16 $\chi^2 = 15.13$ P = 0.5150 | | | | | |
| ◀ 답지내용 1)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겠다. 2) 부모님을 졸라 피난을 가자고 하겠다. 3) 제주도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다. 4) 이러한 상황일수록 평소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 5) 모르겠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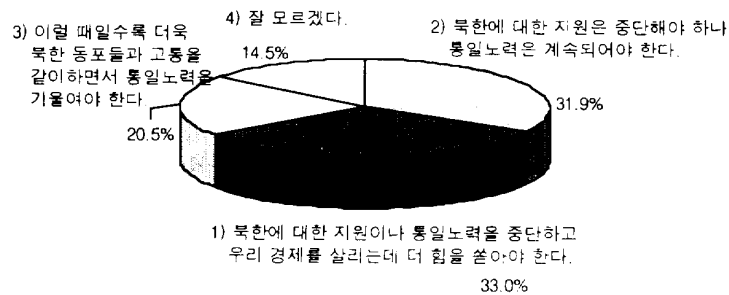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0〉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자아동들의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도 제주도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15.8%). 거주지별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응답율이 남제주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고(39.7%),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북제주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22.2%). 생활수준별로는 부유한 아동과 중간인 아동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가난한 아동들의 경우는 33.3%의 아동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평소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부모님의 하시는 대로 따른다

거나(22.2%), '피난가겠다'(16.7%)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4)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통일노력

최근 한국경제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했고,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통일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외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데도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고 통일노력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43번)라고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②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중단해야 하나, 통일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③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북한동포들과 고통을 같이 하면서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4〉 최근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외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데도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고 통일노력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결과 〈그림 24〉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33.0%),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중단해야 하나, 통일노

력은 계속되어야 한다”(31.9%),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북한동포들과 고통을 같이하면서 통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 가지 답으로 단순화해 보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64.9%이고, ‘통일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은 52.4%로 볼 수 있음직 한데, 이러한 결과는 다분히 공리주의적 현실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 31〉 최근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외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데도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고 통일노력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33.0 (304) | 32.5 (151) | 33.5 (153) | 34.7 (128) | 33.5 (57) | 30.0 (61) | 32.4 (58) | 62.5 (5) | 31.1 (23) | 33.2 (264) | 30.6 (11) | 14.3 (1) |
| 2) | 31.9 (294) | 30.2 (140) | 33.7 (154) | 32.8 (121) | 35.3 (60) | 27.6 (56) | 31.8 (57) | 25.0 (2) | 32.4 (24) | 31.9 (254) | 27.8 (10) | 57.1 (4) |
| 3) | 20.5 (189) | 24.1 (112) | 16.8 (77) | 21.4 (79) | 16.5 (28) | 19.7 (40) | 23.5 (42) | 12.5 (1) | 17.6 (13) | 20.6 (164) | 30.6 (11) | - |
| 4) | 14.5 (134) | 13.1 (61) | 16.0 (73) | 11.1 (41) | 14.7 (25) | 22.7 (46) | 12.3 (22) | 18.9 (14) | 14.3 (114) | 11.1 (4) | 28.6 (2)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9.17$ P = 0.0569 | | df = 12 $\chi^2 = 20.58$ P = 0.0567 | | | | df = 16 $\chi^2 = 37.84$ P = 0.0015 | | | | |
| ◀ 답지내용 1)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2)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중단해야 하나, 통일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3)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북한동포들과 고통을 같이하면서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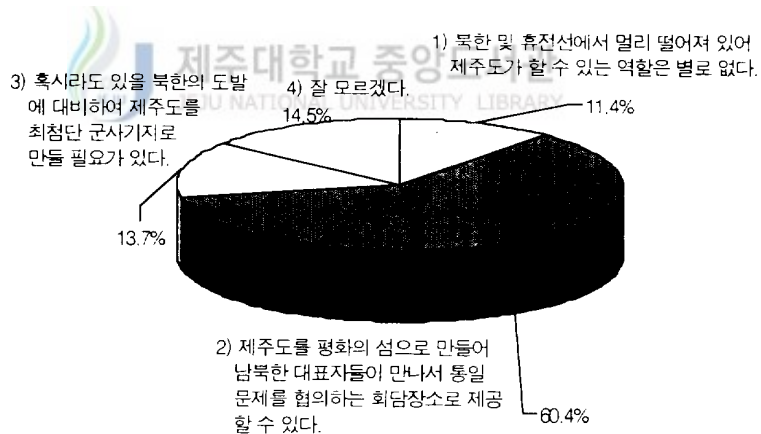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1〉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아동들이 좀 더 많은 어린이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자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통일노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조금 더 많다(24.1%). 거주지별로는 북제주군(19.7%)과 서귀포시(16.5%)보다 남제주군(23.5%)과 제주시(21.4%) 아동들이 약간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고 통일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고 통일노력을 해야한다는 응답율은 가난(30.6%), 중간

(20.6%), 부유(1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제주도와 통일문제

제주도는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쟁발발시에도 제주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제주도가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에 대한 아동들이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와 제주 사람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44번)라고 질문해 보았다.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북한 및 휴전선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 ②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남·북한 대표자들이 만나서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혹시라도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제주도를 최첨단 군사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④ 잘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5〉 제주도와 제주 사람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25〉에서 보듯이, 60.4%나 되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남북한 대표자들이 만나서 통일문제를 협의할 회담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통일문제에 제주도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지난 몇 년동안 제주도에 여러 각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사례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쩌든 대단히 긍정적인 일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25.9%의 아 동들은 통일과 관련하여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3.7%는 제주를 강력한 군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표 32〉 제주도과 제주 사람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11.4 (105) | 14.6 (68) | 8.1 (37) | 11.7 (43) | 14.7 (25) | 4.9 (10) | 15.1 (27) | 25.0 (2) | 8.1 (6) | 11.7 (93) | 11.1 (4) | - |
| 2) | 60.4 (556) | 60.8 (282) | 59.9 (274) | 61.2 (226) | 55.3 (94) | 62.1 (126) | 61.5 (110) | 37.5 (3) | 68.9 (51) | 59.9 (477) | 63.9 (23) | 28.6 (2) |
| 3) | 13.7 (126) | 12.5 (58) | 14.9 (68) | 12.7 (47) | 21.2 (36) | 11.8 (24) | 10.6 (19) | 25.0 (2) | 12.2 (9) | 13.7 (109) | 11.1 (4) | 28.6 (2) |
| 4) | 14.5 (134) | 12.1 (56) | 17.1 (78) | 14.4 (53) | 8.8 (15) | 21.2 (43) | 12.8 (23) | 12.5 (1) | 10.8 (8) | 14.7 (117) | 13.9 (5) | 42.9 (3)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6.72$ P = 0.0021 | | df = 12 $\chi^2 = 33.41$ P = 0.0008 | | | | df = 16 $\chi^2 = 14.98$ P = 0.5260 | | | | |
| ◀ 답지내용 1) 북한 및 휴전선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 2)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남·북한 대표자들이 만나서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3) 흑시라도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제주도를 최첨단 군사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4)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2〉에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통일과 관련하여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자(8.1%)보다 남자(14.6%)가 좀 더 높고, "모르겠다"는 응답율은 남자(12.1%)보다 여자(17.1%)가 높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이 제주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반응이 높은데,

'평화의 섬과 정상회담 장소'가 55.3%인 반면, '강력한 군사기지화'도 21.2%가 되고 있다. 북제주군에서는 제주의 역할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21.2%), 이는 이전 제주에서의 정상회담이 주로 서귀포시, 남제주군에서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

을까 한다. 생활수준별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만들어 가자는 응답율이 부유(68.9%), 가난(63.9%), 중간(59.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의식(미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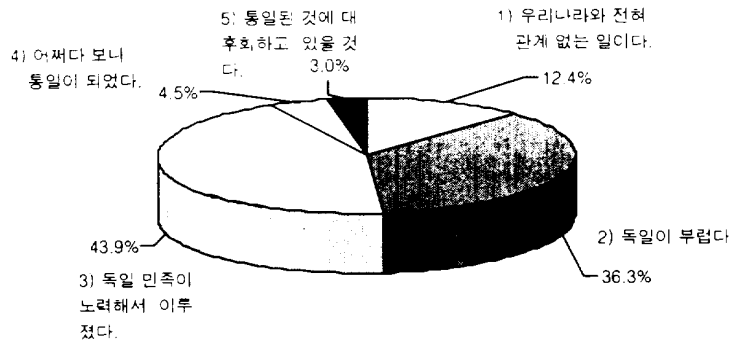
이상에서는 통일을 앞당기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로 통일의식과 관련한 현재적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통일 이후를 상정하여 이에 대비하는 미래적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①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인식, ②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인식, ③ 통일한국의 이념, ④ 통일이후 남북한간 화합의 걸림돌, ⑤ 북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여부, ⑥ 남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여부, ⑦ 같은 반이 된 북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⑧ 통일비용의 감수 여부, ⑨ 통일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은 해야 하는가, ⑩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될 의식 등 10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인식

이미 통일한 동서독에 대해서 아동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32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② 독일이 부럽다, ③ 독일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 졌다, ④ 어찌다 보니 통일이 되었다, ⑤ 통일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6>에서 나타난 것처럼, "독일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졌다"(43.9%), "독일이 부럽다"(36.3%),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12.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절대다수인 80.2%의 아동들이 독일통일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6〉 여러분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33〉 여러분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12.4 (114) | 9.3 (43) | 15.5 (71) | 14.1 (52) | 12.9 (22) | 10.8 (22) | 10.1 (18) | 12.5 (1) | 18.9 (14) | 11.8 (94) | 11.1 (4) | 14.3 (1) |
| 2) | 36.3 (334) | 40.1 (186) | 32.4 (148) | 33.1 (122) | 45.3 (77) | 33.5 (68) | 37.4 (67) | 50.0 (4) | 40.5 (30) | 36.1 (287) | 27.8 (10) | 42.9 (3) |
| 3) | 43.9 (404) | 44.2 (205) | 43.5 (199) | 45.5 (168) | 36.5 (62) | 50.7 (103) | 39.7 (71) | 25.0 (2) | 36.5 (27) | 44.8 (357) | 47.2 (17) | 14.3 (1) |
| 4) | 4.5 (41) | 3.9 (18) | 5.0 (23) | 4.6 (17) | 3.5 (6) | 2.0 (4) | 7.8 (14) | 12.5 (1) | 1.4 (1) | 4.3 (34) | 11.1 (4) | 14.3 (1) |
| 5) | 3.0 (28) | 2.6 (12) | 3.5 (16) | 2.7 (10) | 1.8 (3) | 3.0 (6) | 5.0 (9) | - | 2.7 (2) | 3.0 (24) | 2.8 (1)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2.41$ P = 0.0145 | | df = 12 $\chi^2 = 23.79$ P = 0.0216 | | | | df = 16 $\chi^2 = 18.78$ P = 0.2801 | | | | |
| ✎ 답지내용 1)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2) 독일이 부럽다. 3) 독일 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 졌다. 4) 어쩌다 보니 통일이 되었다. 5) 통일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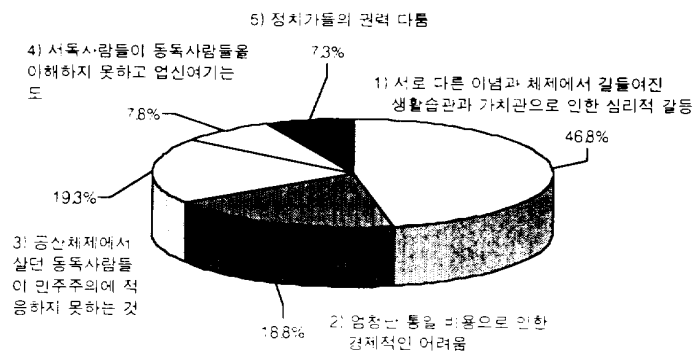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3〉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여자(75.9%)보다 남자(84.3%) 아동들이 독일통일에 대해 더 호의적이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78.6%)와 남제주군(77.1%)보다 북제주군(84.2%)와 서귀포시(81.8%)가 좀 더 독일통일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

다. 생활수준별로는 “독일이 부럽다”는 응답율은 부유(40.5%), 중간(36.1%), 가난(27.8%) 순으로 나타나고, “독일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졌다”는 응답율은 역순인 가난(47.2%), 중간(44.8%), 부유(3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인식

독일은 통일후 많은 통일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통일후유증은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험적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후유증으로 어떤 것이 예상되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를 예측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동서독이 통일되고 얼마동안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들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33번)라고 질문을 해 보았다.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길드려진 생활습관과 가치관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②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③ 공산체제에서 살던 동독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④ 서독사람들의 동독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⑤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7〉 동서독이 통일되고 얼마동안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들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27>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길드려진 생활습관과 가치관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46.8%), “공산체제에 살던 동독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19.3%),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18.8%)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66.1%의 대다수 아동들은 통일후유증으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사회심리적 갈등을 꼽고 있는데, 이는 통일후유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의 통일이후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표 34〉 동서독이 통일되고 얼마동안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들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46.8 (431) | 44.2 (205) | 49.5 (226) | 50.1 (185) | 44.7 (76) | 46.8 (95) | 41.9 (75) | 62.5 (5) | 51.4 (38) | 46.2 (368) | 41.7 (15) | 71.4 (5) |
| 2) | 18.8 (173) | 21.3 (99) | 16.2 (74) | 19.0 (70) | 23.5 (40) | 15.8 (32) | 17.3 (31) | 12.5 (1) | 20.3 (15) | 19.2 (153) | 11.1 (4) | - |
| 3) | 19.3 (178) | 20.7 (96) | 17.9 (82) | 17.6 (65) | 19.4 (33) | 16.7 (34) | 25.7 (46) | 25.0 (2) | 13.5 (10) | 19.6 (156) | 25.0 (9) | 14.3 (1) |
| 4) | 7.8 (72) | 7.5 (35) | 8.1 (37) | 6.8 (25) | 7.6 (13) | 10.3 (21) | 7.3 (13) | - | 6.8 (5) | 8.2 (65) | 5.6 (2) | - |
| 5) | 7.3 (67) | 6.3 (29) | 8.3 (38) | 6.5 (24) | 4.7 (8) | 10.3 (21) | 7.8 (14) | - | 8.1 (6) | 6.8 (54) | 16.7 (6)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4 $\chi^2=6.94$ P=0.1386 | | df=12 $\chi^2=17.00$ P=0.1494 | | | | df=16 $\chi^2=14.23$ P=0.5812 | | | | |
| ☞ 답지내용 1)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길드려진 생활습관과 가치관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2)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3) 공산체제에서 살던 동독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4) 서독사람들의 동독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5)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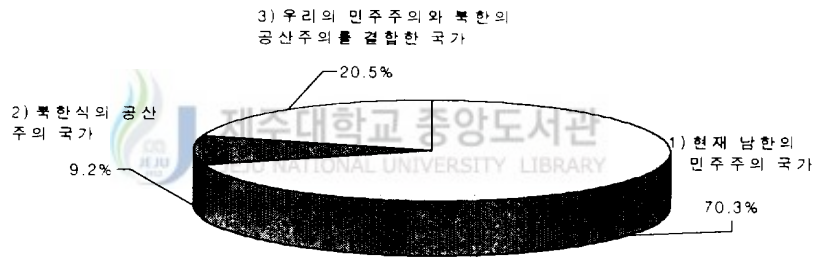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4>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로는 통일후유증으로 사회심리적 갈등을 선택하는 응답율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다만 여자(17.9%)보다 남자(20.7%) 아동들이 좀 더 통일후유증으로 ‘엄청난 통일비용’을 걱정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이 상대적으로 좀 더 ‘엄청난 통일비용’을 걱정하고 있다(25.7%). 생활수준별로는 통일후유증으로 ‘사

회심리적 갈 등을 꼽는 응답율은 부유(71.7%), 중간(65.4%), 가난(55.8%)의 순으로 나타나고, 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꼽는 응답율은 역순인 가난(25.0%), 중간(19.6%), 부유(13.5%) 순을 보이고 있다.

3) 통일한국의 이념

그러면 통일한국의 이념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로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34번)라 질문했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 ② 북한식의 공산주의 국가, ③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8〉 만약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로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28>에서 보듯이, 70.3%인 절대다수의 아동들이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20.5%의 아동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를 들고 있는 데, 이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현 남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예컨대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북한식의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보는 어린이도 9.2%라는 것도 주목된다.

〈표 35〉 만약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로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70.2 (647) | 71.1 (330) | 69.4 (317) | 72.4 (267) | 71.2 (121) | 71.9 (146) | 63.1 (113) | 75.0 (6) | 64.9 (48) | 71.9 (572) | 44.4 (16) | 71.4 (5) |
| 2) | 9.2 (85) | 8.8 (41) | 9.6 (44) | 8.1 (30) | 12.3 (21) | 6.9 (14) | 11.2 (20) | 12.5 (1) | 8.1 (6) | 9.2 (73) | 11.1 (4) | 14.3 (1) |
| 3) | 20.5 (189) | 20.1 (93) | 21.0 (96) | 19.5 (72) | 16.5 (28) | 21.2 (43) | 25.7 (46) | 12.5 (1) | 27.0 (20) | 18.9 (151) | 44.4 (16)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4 $\chi^2=5.30$ P=0.2574 | | df=12 $\chi^2=15.41$ P=0.2196 | | | | df=16 $\chi^2=29.27$ P=0.0221 | | | | |
| ◀ 답지내용 1)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 2) 북한식의 공산주의 국가 3)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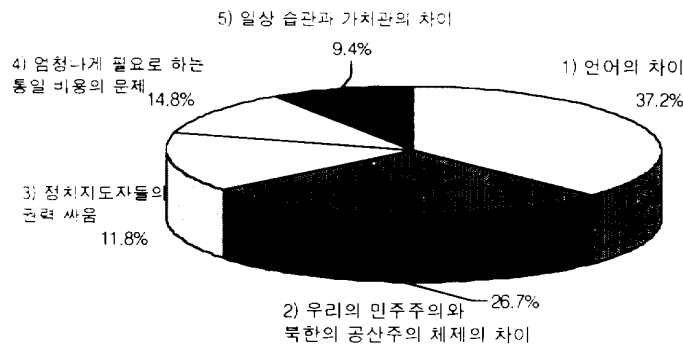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5〉에서 보는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는 거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상대적으로 남제주군(25.7%)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를 꼽는 응답율이 높다. 생활수준별로는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하는 응답율은 중간(71.9%), 부유(64.9%), 가난(44.4%)의 순을 보이는 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를 선택하는 응답율은 역순인 가난(44.4%), 부유(27.0%), 중간(18.9%)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중간층의 아동들은 우리 이념과 체제에 대해 많은 신임을 보내면서 우리 이념으로 통일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반면, 가난한 아동들과 부유한 아동들은 우리 이념과 체제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통일후 남북한간 화합의 걸림돌

이번 질문은 앞의 〈표 34〉의 통일독일의 후유증에 대한 조사와 연상선 상에 있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도 통일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이후에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측 가능한 통일후유증 중에서도 어떤 측면

이 특히 민족의 화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통일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화합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35번)라고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언어의 차이, ②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 ③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싸움, ④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통일비용의 문제, ⑤ 일상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차이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9〉 만약 통일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화합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 〈그림 29〉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어의 차이”(37.2%),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26.7%),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통일비용의 문제”(14.8%) 순으로 반응하였다. 앞의 독일의 경우와 달리 특징적인 것은, 37.2%의 아동들이 통일이후 화합의 걸림돌로서 “언어의 차이”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는 북한의 어색한 말투 때문이거나 아니면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통일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한편, “일상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선택한 응답율이 9.4%밖에 안된다는 것도 특징적인 점이다. 언어문제를 제외하면, 통일후 민족화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6〉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통일비용의 문제’(16.3%)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싸움’(16.0%)을 지적하는 응답율이 약간 더 높다. 생활수준별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아동들 중에 ‘통일비용의 문제’를 지지하는 응답율(5.6%)이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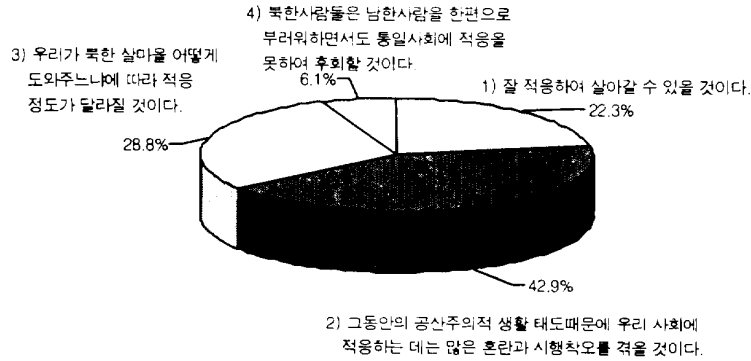
〈표 36〉 만약 통일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화합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37.2 (343) | 38.1 (177) | 36.3 (166) | 32.2 (119) | 41.2 (70) | 39.9 (81) | 40.8 (73) | 37.5 (3) | 35.1 (26) | 37.4 (298) | 36.1 (13) | 42.9 (3) |
| 2) | 26.7 (246) | 28.2 (131) | 25.2 (115) | 27.1 (100) | 30.6 (52) | 22.7 (46) | 26.8 (48) | 12.5 (1) | 35.1 (26) | 26.0 (207) | 30.6 (11) | 14.3 (1) |
| 3) | 14.8 (136) | 13.4 (62) | 16.2 (74) | 16.0 (59) | 15.9 (27) | 13.8 (28) | 12.3 (22) | - | 12.2 (9) | 15.3 (122) | 13.9 (5) | - |
| 4) | 11.8 (109) | 11.6 (54) | 12.0 (55) | 16.3 (60) | 5.3 (9) | 11.3 (23) | 9.5 (17) | 25.0 (2) | 9.5 (7) | 11.9 (95) | 5.6 (2) | 42.9 (3) |
| 5) | 9.4 (87) | 8.6 (40) | 10.3 (47) | 8.4 (31) | 7.1 (12) | 12.3 (25) | 10.6 (19) | 25.0 (2) | 8.1 (6) | 9.3 (74) | 13.9 (5)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 = 4 $\chi^2 = 2.97$ P = 0.5625 | df = 12 $\chi^2 = 24.38$ P = 0.0180 | | df = 16 $\chi^2 = 18.27$ P = 0.3078 | | | | | | | | |
| ☞ 답지내용 1) 언어의 차이 2)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 3)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싸움 4)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통일비용의 문제 5) 일상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차이 | | | | | | | | | | | | |

5) 북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여부

만약 우리 이념과 체제로 통일되었을 경우 북한주민들은 통일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만약 통일이 우리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36번)라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향으로는 ①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② 그 동안의 공산주의적 생활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③ 우리가 북한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적응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④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결국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통일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0〉 만약 통일이 우리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공산주의적 생활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42.9%), “우리가 북한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적응정도가 달라질 것이다”(28.8%),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22.3%) 순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응답율의 순서는 마치 통일초기에 혼란과 갈등을 겪다가 우리의 도움하에 통일사회에 점차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일초기의 혼란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느낄 것이라 예상되거나, 이를 제외하면 아동들은 대체로 북한사람들이 통일사회에 잘 적응하여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7〉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여자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사람들이 통일사회 적응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 주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32.6%). 거주지별로는 북제주군(20.2%)과 제주시(16.8%)보다 남제주군(30.7%)과 서귀포시(27.6%) 아동들이 약간 더 북한사람들이 통일사회에 잘 적응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가난(25.0%), 중간(23.0%), 부유(16.2%)순으로 북한사람들 통일사회에 잘 적응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난한 아동들 중 58.3%는 통일후 북한사람들의 우리 사회 적응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도움이 없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통일사회에 적응해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표 37〉 만약 통일이 우리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22.3 (205) | 23.3 (108) | 21.2 (97) | 16.8 (62) | 27.6 (47) | 20.2 (41) | 30.7 (55) | 12.5 (1) | 16.2 (12) | 23.0 (183) | 25.0 (9) | - |
| 2) | 42.9 (395) | 44.6 (207) | 41.1 (188) | 45.8 (169) | 42.9 (73) | 38.4 (78) | 41.9 (75) | 50.0 (4) | 36.5 (27) | 42.7 (340) | 58.3 (21) | 42.9 (3) |
| 3) | 28.8 (265) | 25.0 (116) | 32.6 (149) | 29.3 (108) | 25.3 (43) | 36.0 (73) | 22.9 (41) | 37.5 (3) | 32.4 (24) | 29.0 (231) | 11.1 (4) | 42.9 (3) |
| 4) | 6.1 (56) | 7.1 (33) | 5.0 (23) | 8.1 (30) | 4.1 (7) | 5.4 (11) | 4.5 (8) | - | 14.9 (11) | 5.3 (42) | 5.6 (2)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4 $\chi^2=7.37$ P=0.1173 | | df=12 $\chi^2=33.73$ P=0.0007 | | | | df=16 $\chi^2=47.23$ P=0.0000 | | | | | |
| <p>☛ 답지내용</p> <p>1)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그 동안의 공산주의적 생활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3) 우리가 북한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적응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4)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결국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통일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p> | | | | | | | | | | | | |

6) 남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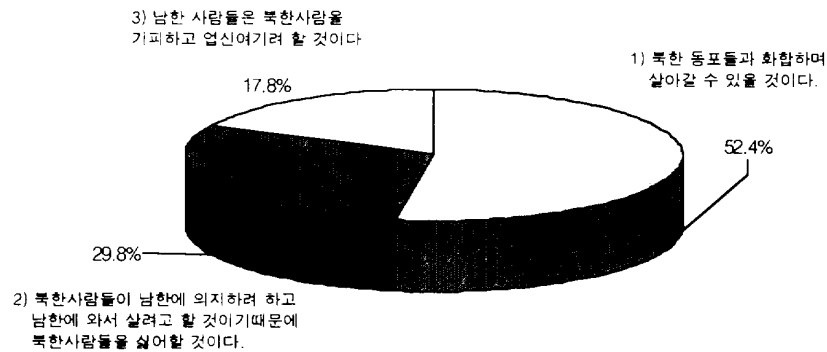


우리의 주도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사회에 대한 적응의 문제는, 북한사람 뿐만 아니라,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남한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우리의 주도로 통일되었을 때 남한 사람들은 통일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37번)라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②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의지하려 하고 남한에 와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③ 남한 사람들은 북한사람을 기피하고 업신여기려 할 것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1〉에서 보듯이,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52.4%),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의지하려 하고 남한에 와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29.8%),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을 기피하고 업신여기려 할

것이다”(17.8%) 순으로 응답하였다. 간소한 차이로 남한사람들이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긴 하지만, 다소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47.6%는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을 싫어하거나 업신여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 만약 우리의 주도로 통일되었을 때 남한 사람들은 통일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38〉 만약 우리의 주도로 통일되었을 때 남한 사람들은 통일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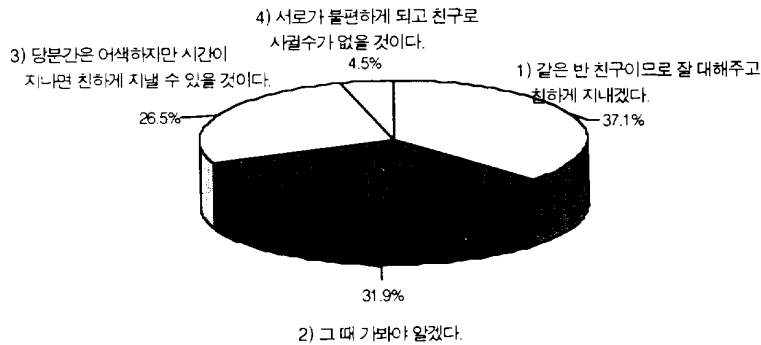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52.4 (483) | 55.4 (257) | 49.5 (226) | 46.6 (172) | 54.7 (93) | 52.2 (106) | 62.6 (112) | 25.0 (2) | 52.7 (39) | 53.4 (425) | 41.7 (15) | 28.6 (2) |
| 2) | 29.8 (274) | 29.1 (135) | 30.4 (139) | 32.8 (121) | 31.2 (53) | 29.6 (60) | 22.3 (40) | 75.0 (6) | 27.0 (20) | 28.5 (227) | 50.0 (18) | 42.9 (3) |
| 3) | 17.8 (164) | 15.5 (72) | 20.1 (92) | 20.6 (76) | 14.1 (24) | 18.2 (37) | 15.1 (27) | - | 20.3 (15) | 18.1 (144) | 8.3 (3) | 28.6 (2)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8.97$ P = 0.0617 | | df = 12 $\chi^2 = 18.98$ P = 0.0889 | | | | df = 16 $\chi^2 = 29.33$ P = 0.0217 | | | | |
| ☞ 답지내용 1)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의지하려하고 남한에 와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3)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을 기피하고 업신여기려 할 것이다.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8>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을 싫어하거나 업신여길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남자아동들(44.6%)보다 여자아동들(50.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은 62.6%가 남한사람들은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지역, 특히 제주시는 53.4%정도가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을 싫어하거나 업신 여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52.7%)와 중간(53.4%)의 아동들은 남북한 사람이 화합하며 살아갈 것이고 보는 반면, 가난한 아동들은 50.0%가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 같은 반이 된 북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그러면 만약 통일이 되어서 아동들이 북한 어린이들과 같은 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 이후에 여러분이 북한 어린이들과 같은 반이 되어 학교에 다닌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겠습니까?”(38번)라고 질문을 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향으로는 ① 같은 반 친구이므로 잘 대해주고 친하게 지내겠다. ② 그 때 가 봐야 알겠다. ③ 당분간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④ 서로가 불편하게 되고 친구로 사귄 수가 없을 것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2> 통일 이후에 여러분이 북한 어린이들과 같은 반이 되어 학교에 다닌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겠습니까?



그 결과 <그림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같은 반 친구이므로 잘 대해주고 친하게 지

내겠다”(37.1%), “그 때 가 봐야 알겠다”(31.9%), “당분간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26.5%) 순으로 반응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유보적인 태도가 31.9%가 되고 있기 하지만, 대체로 65.6%의 아동들이 북한어린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8>에서 우연히 북한어린이를 만났을 때의 태도에서 응답했던 비율, 즉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47.1%), “같은 거래 같은 동포이므로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하겠다”(41.9%),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4.2%)는 것과는 통하는 맥락이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39>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여자(34.4%)보다 남자(39.9%) 아동들이 북한어린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다. 북제주군(32.0%)보다는 남제주군(40.8%), 서귀포시(38.8%), 제주시(37.4%)의 아동들이 좀 더 적극적이다. 생활수준별로는 가난한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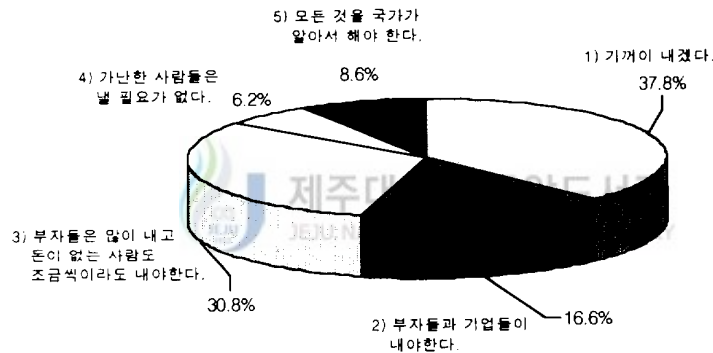
<표 39> 통일 이후에 여러분이 북한 어린이들과 같은 반이 되어 학교에 다닌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겠습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37.1 (342) | 39.9 (185) | 34.4 (157) | 37.4 (138) | 38.8 (66) | 32.0 (65) | 40.8 (730) | 50.0 (4) | 37.8 (28) | 37.1 (295) | 36.1 (13) | 28.6 (2) |
| 2) | 31.9 (294) | 34.9 (162) | 28.9 (132) | 31.2 (115) | 35.3 (60) | 30.5 (62) | 31.8 (57) | 25.0 (2) | 25.7 (19) | 32.3 (257) | 41.7 (15) | 14.3 (1) |
| 3) | 26.5 (244) | 20.3 (94) | 32.8 (150) | 25.7 (95) | 21.8 (37) | 34.0 (69) | 24.0 (43) | 12.5 (1) | 27.0 (20) | 26.8 (213) | 22.2 (8) | 28.6 (2) |
| 4) | 4.5 (41) | 5.0 (23) | 3.9 (18) | 5.7 (21) | 4.1 (7) | 3.4 (7) | 3.4 (6) | 12.5 (1) | 9.5 (7) | 3.9 (31) | - | 28.6 (2)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9.93$ P = 0.0005 | | df = 12 $\chi^2 = 12.37$ P = 0.4159 | | | | df = 16 $\chi^2 = 21.56$ P = 0.1577 | | | | |
| ☛ 답지내용 1) 같은 반 친구이므로 잘 대해주고 친하게 지내겠다. 2) 그 때 가 봐야 알겠다. 3) 당분간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4) 서로가 불편하게 되고 친구로 사귄 수가 없을 것이다. | | | | | | | | | | | | |

8) 통일비용의 감수 여부

통일이 되었을 때 많은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¹⁾ 그리고 통일비용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 경우 아동들은 통일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여러분은 기꺼이 통일비용을 낼 수 있습니까?”(39번)라고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기꺼이 내겠다. ② 부자들과 기업들이 내야 한다. ③ 부자들은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씩이라도 내야 한다. ④ 가난한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다. ⑤ 모든 것을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3〉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여러분은 기꺼이 통일비용을 낼 수 있습니까?



31) 재정경제원의 추정에 따르면, 1995년 현재로 통일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에 적게는 2000억 달러, 많게는 400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10년 동안 매년 400억 달러, 환산하면 1992년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액수인 약 33조원 씩 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영선 교수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고성장한다고 전제할 경우에 남한경제가 앞으로 40년간 6.75%의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저성장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연간 5.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남북한의 1인당 생산이 일치하게 될 때 완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아래서 통일비용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보면, 1990년 현재 가치로 약 8418억 달러가 소요되며, 남북한 경제적 통합은 42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이상에 대해서는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1995), 140쪽; 이영선 편,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93), 65 및 81쪽을 참조.

그 결과 <그림 33>에서 보듯이, “기꺼이 내겠다”(37.8%), “부자들은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씩이라도 내야 한다”(30.8%), “부자들과 기업들이 내야 한다”(16.6%)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68.6%의 대다수 아동들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통일비용을 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부자들과 기업들이 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낼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22.8%가 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40>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 있어서 통일비용을 “기꺼이 내겠다”는 비율은 여자(32.8%)보다 남자(42.7%) 아동들이 좀 더 적극적이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46.4%)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내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시(39.3%), 서귀포시(34.7%), 북제주군(3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기꺼이 내겠다”는 응답율은 부유(47.3%), 중간(37.6%), 가난(33.3%)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난한 아동들의 경우에 30.6%는 조금씩이라도 내겠다, 22.2%는 낼 수 없다는 응답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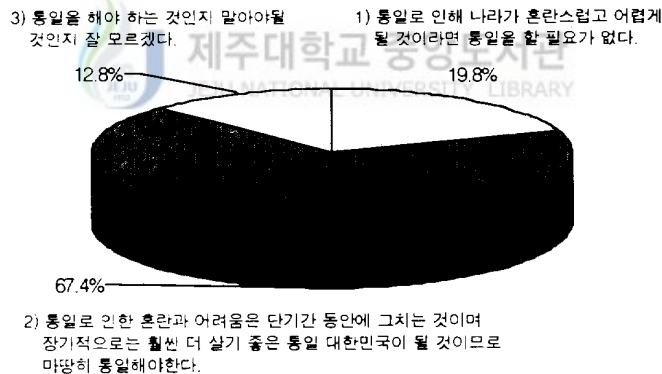
<표 40>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여러분은 기꺼이 통일비용을 낼 수 있습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37.8 (348) | 42.7 (198) | 32.8 (150) | 39.3 (145) | 34.7 (59) | 30.0 (61) | 46.4 (83) | 25.0 (2) | 47.3 (35) | 37.6 (299) | 33.3 (12) | - |
| 2) | 16.6 (153) | 16.4 (76) | 16.8 (77) | 17.1 (63) | 18.8 (32) | 16.7 (34) | 13.4 (24) | 37.5 (3) | 21.6 (16) | 15.5 (123) | 22.2 (8) | 42.9 (3) |
| 3) | 30.8 (284) | 27.8 (129) | 33.9 (155) | 28.2 (104) | 33.5 (57) | 36.5 (74) | 27.4 (49) | 25.0 (2) | 10.8 (8) | 32.7 (260) | 30.6 (11) | 42.9 (3) |
| 4) | 6.2 (57) | 5.4 (25) | 7.0 (32) | 4.6 (17) | 5.9 (10) | 8.9 (18) | 6.7 (12) | - | 4.1 (3) | 6.4 (51) | 8.3 (3) | - |
| 5) | 8.6 (79) | 7.8 (36) | 9.4 (43) | 10.8 (40) | 7.1 (12) | 7.9 (16) | 6.1 (11) | 12.5 (1) | 16.2 (12) | 7.9 (63) | 5.6 (2)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0.43$ P = 0.0337 | | df = 12 $\chi^2 = 20.98$ P = 0.0506 | | | | df = 16 $\chi^2 = 31.34$ P = 0.0121 | | | | |
| ☞ 답지내용 1) 기꺼이 내겠다. 2) 부자들과 기업들이 내야 한다. 3) 부자들은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씩이라도 내야 한다. 4) 가난한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다. 5) 모든 것을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한다. | | | | | | | | | | | | |

9) 통일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은 해야 하는가?

통일후유증으로 예상되는 것은 앞에서 확인되어 온 것처럼 사회혼란, 심리적 갈등, 통일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많다. 실제 이러한 통일후유증을 모두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통일은 해야 하는 것일까? 재차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볼 의도로 질문해 보았다.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단기간 동안은 가치관의 차이,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 ① 통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될 것이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② 통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은 단기간 동안에 그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므로 마땅히 통일해야 한다, ③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4〉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단기간 동안은 가치관의 차이, 엄청난 양의 통일 비용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34〉에서 보듯이, 67.4%라는 대다수의 아동이 “통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은 단기간 동안에 그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므로 마땅히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32.6%의 아동들은 대답을 유보하거나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역시 여기에

는 최근 통일환경의 변화, 특히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41>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과 거주지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근소한 차이지만 여자(18.6%)보다 남자(20.9%)가, 북제주군(15.3%)보다 다른지역(제주시22.0%, 남제주군 20.1%, 서귀포시 20.0%)이 '혼란을 초래하는 통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67.6%)와 중간(67.6%)보다 가난(72.2%)한 아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1>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단기간 동안은 가치관의 차이,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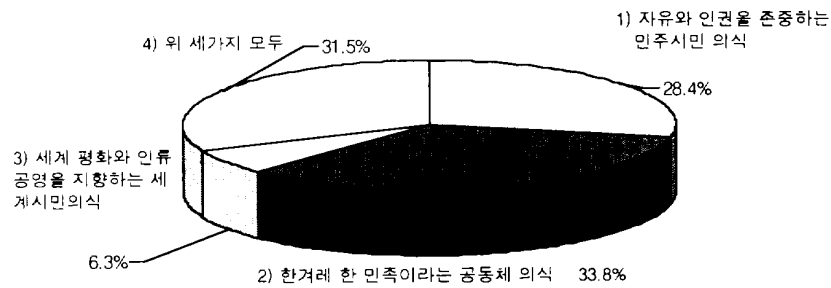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19.8 (182) | 20.9 (97) | 18.6 (85) | 22.0 (81) | 20.0 (34) | 15.3 (31) | 20.1 (36) | 25.0 (2) | 18.9 (14) | 20.0 (159) | 16.7 (6) | 14.3 (1) |
| 2) | 67.4 (621) | 67.2 (312) | 67.6 (309) | 67.2 (248) | 69.4 (118) | 65.0 (132) | 68.7 (123) | 50.0 (4) | 67.6 (50) | 67.6 (538) | 72.2 (26) | 42.9 (3) |
| 3) | 12.8 (118) | 11.9 (55) | 13.8 (63) | 10.8 (40) | 10.6 (18) | 19.7 (40) | 11.2 (20) | 25.0 (2) | 13.5 (10) | 12.4 (99) | 11.1 (4) | 42.9 (3)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4 $\chi^2=4.16$ P=0.3839 | | df=12 $\chi^2=18.46$ P=0.1021 | | | | df=16 $\chi^2=9.51$ P=0.8908 | | | | |
| ☞ 답지내용 1) 통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될 것이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 2) 통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은 단기간 동안에 그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므로 마땅히 통일해야 한다. 3)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 | | | | | | | | | | | |

10)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

미래관의 마지막 문항으로 "통일된 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41번)를 질문해 보았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② 한 겨레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③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 의식, ④ 위 세가지 모두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5>에서 나타나 것처럼, “한겨레 한민족 공동체 의식”(33.8%), “위 세가지 모두”(31.5%),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28.4%) 순으로 반응하였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조사자가 기대했던 것은 “위 세가지 모두”에 대다수가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 의식”을 선택한 응답율은 겨우 6.3%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35> 통일된 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표 42> 통일된 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28.4 (262) | 32.3 (150) | 24.5 (112) | 33.6 (124) | 26.5 (45) | 19.2 (39) | 30.2 (54) | 50.0 (4) | 29.7 (22) | 28.0 (223) | 30.6 (11) | 28.6 (2) |
| 2) | 33.8 (311) | 31.9 (148) | 35.7 (163) | 26.3 (97) | 45.3 (77) | 32.5 (66) | 39.7 (71) | 37.5 (3) | 32.4 (24) | 33.9 (270) | 36.1 (13) | 14.3 (1) |
| 3) | 6.3 (58) | 5.8 (27) | 6.8 (31) | 9.5 (35) | 2.9 (5) | 6.9 (14) | 2.2 (4) | 12.5 (1) | 6.8 (5) | 5.9 (47) | 13.9 (5) | - |
| 4) | 31.5 (290) | 30.0 (139) | 33.0 (151) | 30.6 (113) | 25.3 (43) | 41.4 (84) | 27.9 (50) | - | 31.1 (23) | 32.2 (256) | 19.4 (7) | 57.1 (4)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18.32$ P = 0.0010 | | df = 12 $\chi^2 = 45.77$ P = 0.0000 | | | | df = 16 $\chi^2 = 22.15$ P = 0.1381 | | | | |
| ✎ 답지내용 1)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2) 한 겨레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3)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 의식 4) 위 세가지 모두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42>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여자는 상대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35.7%)에, 남자는 민주시민 의식(32.3%)에 좀 더 많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별로 서귀포시(45.3%)와 남제주군(39.7%)는 민족공동체 의식에, 북제주군은 “위 세가지 모두”(41.4%)에, 제주시는 민주시민 의식(33.6%)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응답율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가난한 아동들에서 13.9%는 세계시민 의식을 선택하고 있다.

6.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한 인식

이상에서 통일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끝났다. 마지막 6절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도와 흥미도를 조사해 보고 향후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① 평소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 정도,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매스컴 시청 정도 ③ 통일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원, ④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⑤ 학교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인식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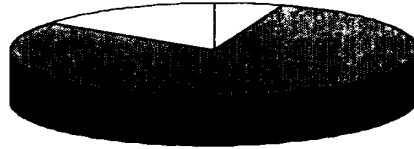
1) 평소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하는가?

아동들이 평소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까?”(4번)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향으로는 ①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② 어쩌다 간혹 이야기를 나눈다, ③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6>에서 보듯이, “어쩌다 간혹 이야기를 나눈다”(79.6%),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14.8%),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5.6%) 순으로 반응하였다. 통일과 북한이 아동들의 일상적 대화의 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84.2%라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들은 자주는 아니라 할 지라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림 36〉 여러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까?

3)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14.8%) 1)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5.6%)



(79.6%)

2) 어찌다 간혹 이야기를 나눈다.

〈표 43〉 여러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5.6 (52) | 6.0 (28) | 5.3 (24) | 4.9 (18) | 7.1 (12) | 4.9 (10) | 6.7 (12) | 12.5 (1) | 12.2 (9) | 4.9 (39) | 8.3 (3) | - |
| 2) | 79.6 (733) | 74.1 (344) | 85.1 (389) | 78.9 (291) | 83.5 (142) | 75.9 (154) | 81.6 (146) | 62.5 (5) | 70.3 (52) | 80.9 (644) | 75.0 (27) | 71.4 (5) |
| 3) | 14.8 (136) | 19.8 (92) | 9.6 (44) | 16.3 (60) | 9.4 (16) | 19.2 (39) | 11.7 (21) | 25.0 (2) | 17.6 (13) | 14.2 (113) | 16.7 (6) | 28.6 (2)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3 $\chi^2=21.08$ P=0.0001 | | df=9 $\chi^2=13.65$ P=0.1351 | | | | df=12 $\chi^2=36.16$ P=0.0003 | | | | |
| ☛답지내용 1)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2) 어찌다 간혹 이야기를 나눈다. 3)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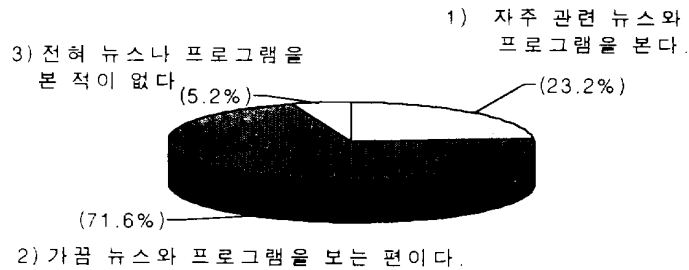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43〉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자(80.1%)보다 여자(90.4%) 아동들이 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83.8%)와 북제주군(80.8%)보다 서귀포시(90.6%)와 남제주군(88.3%) 어린이들에게 통일과 북한은 좀 더 이야기의 주제로 등장한다. 생활수준별로는 중간(85.8%), 가난(83.3%), 부유(82.5%) 순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 통일 및 북한 관련 매스컴 청취 정도

다시 한 번 평소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보는 편입니까?”(5번)라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답항으로는 ① 자주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을 본다, ② 가끔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다, ③ 전혀 뉴스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7>에서 보듯이, “가끔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다”(71.6%),

<그림 37>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보는 편입니까?



<표 44>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보는 편입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23.2 (214) | 25.0 (116) | 21.4 (98) | 28.9 (107) | 25.3 (43) | 18.7 (38) | 14.5 (26) | 37.5 (3) | 32.4 (24) | 22.0 (175) | 27.8 (10) | 28.6 (2) |
| 2) | 71.6 (659) | 68.7 (319) | 74.4 (340) | 66.1 (244) | 69.4 (118) | 75.4 (153) | 80.4 (144) | 50.0 (4) | 62.2 (46) | 72.8 (580) | 66.7 (24) | 71.4 (5) |
| 3) | 5.2 (48) | 6.3 (19) | 4.2 (29) | 4.9 (18) | 5.3 (9) | 5.9 (12) | 5.0 (9) | 12.5 (1) | 5.4 (4) | 5.2 (41) | 5.6 (2) | -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 = 4 $\chi^2 = 5.39$ P = 0.2489 | | df = 12 $\chi^2 = 23.15$ P = 0.0264 | | | | df = 16 $\chi^2 = 7.81$ P = 0.9543 | | | | |
| ☛ 답지내용 1) 자주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을 본다. 2) 가끔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다. 3) 전혀 뉴스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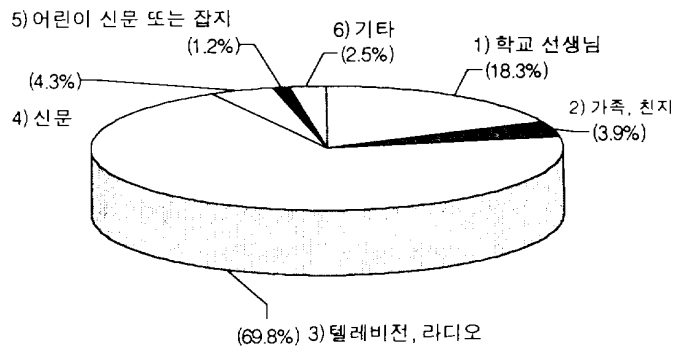
“자주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을 본다”(23.2%), “전혀 뉴스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보듯, 95.0%의 절대다수의 아동들이 가끔 혹은 자주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이는 앞의 통일대화 정도(84.2%)와 비교해 볼 때, 아동들은 통일과 북한에 관한 대화는 덜하더라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을 자주보는 아동들도 23.4%가 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44>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마스크를 더 자주보는 측은 여자(21.4%)보다 남자(25.0%) 아동들이 약간 더 많다. 거주지별로는 북제주군(18.7%)과 남제주군(14.5%)보다 제주시(28.9%)와 서귀포시(25.3%)의 아동들이 좀 더 자주 마스크를 시청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32.4%), 가난(27.8%), 중간(22.0%) 순으로 자주 마스크를 시청하고 있다.

3) 통일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원,

아동들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6번)라고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학교선생님, ② 가족, 친지, ③ 텔레비전, 라디오, ④ 신문, ⑤ 어린이 신문 또는 잡지, ⑥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8> 여러분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그 결과 <그림 38>에서 보듯이, "텔레비전, 라디오"(69.7%), "학교선생님"(18.3%), "신문"(4.3%) 순으로 나타났다. 과연 오늘날은 매스컴의 시대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여기서 아동들이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시사적인 정보였을 것이다. 반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시사적인 정보와 관련한 교육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45> 여러분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 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 가난 |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 1) | 18.3 (169) | 16.6 (77) | 20.1 (92) | 16.8 (62) | 14.7 (25) | 18.2 (37) | 25.1 (45) | 12.5 (1) | 24.3 (18) | 17.6 (140) | 25.0 (9) | 14.3 (1) |
| 2) | 3.9 (36) | 4.1 (19) | 3.7 (17) | 3.8 (14) | 5.9 (10) | 2.5 (5) | 3.9 (7) | 12.5 (1) | 4.1 (3) | 3.6 (29) | 8.3 (3) | - |
| 3) | 69.7 (642) | 70.7 (328) | 68.7 (314) | 69.4 (256) | 67.6 (115) | 73.9 (150) | 67.6 (121) | 75.0 (6) | 62.2 (46) | 70.5 (561) | 66.7 (24) | 71.4 (5) |
| 4) | 4.3 (40) | 4.7 (22) | 3.9 (18) | 5.7 (21) | 7.1 (12) | 2.5 (5) | 1.1 (2) | - | 4.1 (3) | 4.6 (37) | - | - |
| 5) | 1.2 (11) | 1.3 (6) | 1.1 (5) | 0.8 (3) | 2.4 (4) | 2.0 (4) | - | - | 1.4 (1) | 1.3 (10) | - | - |
| 6) | 2.5 (23) | 2.6 (12) | 2.4 (11) | 3.5 (13) | 2.4 (4) | 1.0 (2) | 2.2 (4) | - | 4.1 (3) | 2.4 (19) | -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5 $\chi^2=2.22$ P=0.8166 | | df=15 $\chi^2=29.10$ P=0.0155 | | | | df=20 $\chi^2=16.06$ P=0.7127 | | | | |
| ☛ 답지내용 1) 학교 선생님 2) 가족, 친지 3) 텔레비전, 라디오 4) 신문 5) 어린이 신문 또는 잡지 6) 기타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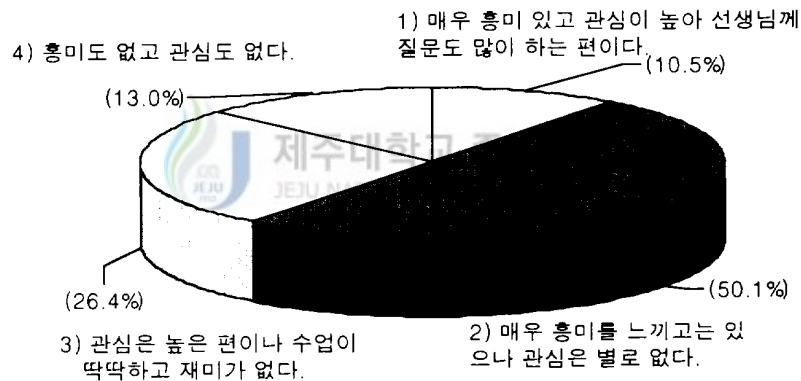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는, <표 45>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남자(16.6%)보다 여자(20.1%) 아동들은 학교에서 얻는 정보가 좀 더 많다고 답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응답율은 북제주군(18.2%), 제주시(16.8%), 서귀포시(14.7%)보다 남제주군(25.1%) 아동들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중간(17.6%)보다 가난(25.0%)과 부유(23.3%)한 아동들에서 통일관련 정보원

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아동들은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7번)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매우 흥미있고 관심이 높아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다, ② 매우 흥미를 느끼고 는 있으나 관심은 별로 없다, ③ 관심은 높은 편이나 수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④ 흥 미도 관심도 없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9〉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결과 〈그림 39〉에서 보듯이, “매우 흥미를 느끼고 는 있으나 관심은 별로 없다” (50.1%), “관심은 높은 편이나 수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26.4%),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13.0%), “매우 흥미있고 관심이 높아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다”(10.5%) 순 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흥미’는 선생님의 수업내용 및 진행 방법과 관련이 깊고, ‘관심’은 아동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은 있더라도 선생님의 수업진행이 재미가 없으면 흥미를 잃게 되고, 반대로 선생님의 수업진행

이 재미가 있으면 흥미는 있으나 평소관심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흥미가 있으면 관심도가 재고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도 이러한 점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44>와 <표 45>의 아동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평소 관심도가 대체로 높았던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선생님의 수업진행 방법적 측면에 재고되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 46>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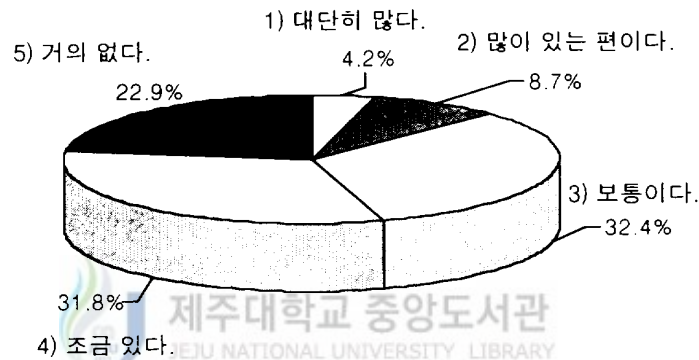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10.5 (97) | 10.1 (47) | 10.9 (50) | 9.8 (36) | 8.2 (14) | 8.4 (17) | 16.8 (30) | 25.0 (2) | 21.6 (16) | 9.5 (76) | 8.3 (3) | - |
| 2) | 50.1 (461) | 49.8 (231) | 50.3 (230) | 47.7 (176) | 53.5 (91) | 49.8 (101) | 52.0 (93) | 50.0 (4) | 39.2 (29) | 50.9 (405) | 52.8 (19) | 57.1 (4) |
| 3) | 26.4 (243) | 24.4 (113) | 28.4 (130) | 28.7 (106) | 27.1 (46) | 28.6 (58) | 18.4 (33) | 12.5 (1) | 21.6 (16) | 27.0 (215) | 25.0 (18) | 28.6 (2) |
| 4) | 13.0 (120) | 15.7 (73) | 10.3 (47) | 13.8 (51) | 11.2 (19) | 13.3 (27) | 12.8 (23) | 12.5 (1) | 17.6 (13) | 12.6 (100) | 13.9 (5)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 df=4 $\chi^2=6.50$ P=0.1647 | | df=12 $\chi^2=18.05$ P=0.1139 | | | | df=16 $\chi^2=19.59$ P=0.2388 | | | | |
| ☛ 답지내용 1) 매우 흥미 있고 관심이 높아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다. 2) 매우 흥미를 느끼고는 있으나 관심은 별로 없다. 3) 관심은 높은 편이나 수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4)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 | | | | | | | | | | | |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46>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 여자(28.4%)보다 남자(24.4%) 아동들이 좀 더 수업에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남제주군(18.4%) 어린이들이 가장 수업에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가난(52.8%)과 중간(50.9%)보다 부유(39.2%)한 어린이들이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을 잃고 있다.

5) 학교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인식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교육자료의 사용과도 관련이 높을 것이다. 아동들은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관련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8번)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항으로는 ① 대단히 많다, ② 많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거의 없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40〉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 〈그림 40〉에서 보듯이, “보통이다”(32.4%), “조금있다”(31.8%), “거의 없다”(22.9%)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동들은 대체로 학교에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가 매우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배경변인별로는, 〈표 47〉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보다 관련자료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47〉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 전체 | 성 별 | | 거주지별 | | | | 생활수준별 | | | | |
|---|---|---------------|---|---------------|--------------|--------------|---|-------------|--------------|---------------|--------------|-------------|
| | | 남 | 여 |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 매우부유 | 부유 | 중간 | 가난 | 매우가난 |
| | 921 | 464 | 457 | 369 | 170 | 203 | 179 | 8 | 74 | 796 | 36 | 7 |
| 1) | 4.2 (39) | 4.1 (19) | 4.4 (20) | 3.0 (11) | 5.9 (10) | 5.4 (11) | 3.9 (7) | 12.5 (1) | 6.8 (5) | 3.5 (28) | 8.3 (3) | 28.6 (2) |
| 2) | 8.7 (80) | 10.3 (48) | 7.0 (32) | 8.4 (31) | 11.8 (20) | 7.4 (15) | 7.8 (14) | 12.5 (1) | 8.1 (6) | 8.5 (68) | 13.9 (5) | - |
| 3) | 32.4 (298) | 31.3 (145) | 33.5 (153) | 30.6 (113) | 35.9 (61) | 31.5 (64) | 33.5 (60) | 37.5 (3) | 24.3 (18) | 33.4 (266) | 27.8 (10) | 14.3 (1) |
| 4) | 31.8 (293) | 31.3 (145) | 32.4 (148) | 32.2 (119) | 32.4 (55) | 33.0 (67) | 29.1 (52) | 12.5 (1) | 35.1 (26) | 31.4 (250) | 36.1 (13) | 42.9 (3) |
| 5) | 22.9 (211) | 23.1 (107) | 22.8 (104) | 25.7 (95) | 14.1 (24) | 22.7 (46) | 25.7 (46) | 25.0 (2) | 25.7 (19) | 23.1 (184) | 13.9 (5) | 14.3 (1) |
| 변인간 차이 검증 | df = 4 $\chi^2 = 3.46$ P = 0.4838 | | df = 12 $\chi^2 = 14.92$ P = 0.2453 | | | | df = 16 $\chi^2 = 22.75$ P = 0.1205 | | | | | |
| ☞ 답지내용 1) 대단히 많다. 2) 많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조금 있다. 5) 거의 없다. | | | | | | | | | | | | |

IV. 결 론

1. 논의의 요약

본 연구는 통일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상대방인 어린이들의 통일의식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문제의 소재를 파악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여기서 통일 의식이란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제반 가치관이라 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5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하여 조사한 바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민족관)

민족공동체 의식은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 이끌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일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아직도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겨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년전 金姬에 의해 조사되었던 질문을 똑같이 던져 보았다. 그 결과 '남북한은 한겨레인가'라는 질문에 상당수의 아동들이 한겨레라는 인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66.5%) 5년전 73.1%에 비해 낮아졌으며, 북한과 미국이 운동정기를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도 52.5%에서 41.0%로 낮아졌다. 또한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 때 태도는 5년전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주겠다"(69.5%),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해하겠다"(23.9%) 순이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해하겠다"(47.1%), "같은 겨레 같은 동포이므로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해하겠다"(4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45.7%), "우리도 도와주어야 하지만 UN 및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38.2%), "우리도 선진국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6.5%)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오늘날 IMF체제하에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5년전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볼 때 분단상태의 지속시간이 더 지날수록 한겨레라는 의식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의식(통일관)

통일에 대한 현재적 의식(통일관)에서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당위성, 통일이 안되는 원인, 통일의 방법, 통일노력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45.5%), “미국·소련의 욕심”(34.4%)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아동들이 분단의 원인을 김일성과 국제정치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5년전 “한민족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 우리 겨레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한겨레라는 민족의식은 약화된 반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분히 공리주의적 사고가 앞서는 듯 하다.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5년전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49.4%),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34.1%)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41.0%),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35.9%)로 순위가 바뀌어 나타나고 있어 이는 동서독 통일경험과는 달리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것 같다.

통일이 안되는 책임은 다수의 어린이들이 북한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일의 방법에서는 어린이들간에도 북한의 조기붕괴론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개혁·개방론이 점차 현실적 인식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절대다수인 82.2%가 “남북한 사람 모두”를 지지했으며, 통일글짓기 주제는 남자의 경우 48.3%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여자의 경우 38.7%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선택하였다.

3) 북한에 대한 현재적 인식(북한관)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59.8%)이 “김일성·김정일”(42.6%)보다 일순위로 응답하고 있어 이는 최근 북한의 쌀사정과 굶주림의 실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수준별로는 부유한 어린이와 가난한 어린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난한 어린이가 “김일성·김정일”(69.4%)을 일순위로 선택하고 있어 가난한 어린이들에게는 북한의 가난이 뉴스거리가 못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의 공식명칭은 13.0%의 어린이만 제대로 알고 있고, 87.0%라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북한의 공식이름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30.1%)을 가장 알고 싶어 했으며 이는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과 관련이 깊다고 보아진다.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에서는 82.6%의 어린이들이 우리가 잘 살 것이라고 하였으며, 북한 경제의 침체원인은 75.8%라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들이 북한의 경제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70.2%가 “김정일과 공산당원들”이라 답하고 있지만 아직도 16.8%의 어린이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원들”이라고 답하고 있어 이는 북한에 대한 아동들의 평소 관심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4) 국가 및 안보에 대한 의식(국가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62.9%의 어린이들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답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통일노력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공산집단은 강력히 대처하고 북한주민과는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한다”(39.0%), “무력도발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통일대화와 노력을 해야 한다”(26.3%)고 답하고 있어 65.3%의 어린이들이 통일대화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별로는 “북한공산집단을 강력히 대처하고, 북한주민과는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가난(44.4%), 중간(39.1%), 부유(33.8%)순으로, 그리고 “통일노력과 대화가 필요없다”는 응답율은 부유(28.4%), 중간(23.2%), 가난(11.1%)로 나타나 주목된다. 전쟁발발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정확한 자기 태도를 밝힌 어린이는 28.1%에 불과하고 46.5%는 부모님 말씀에 따르거나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비율이지만 13.2%의 어린이들은 제주도가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북한을 도와주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4.9%의 어린이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52.4%의 어린이는 ‘통일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생활수준별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고 통일노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가난(30.6%), 중간(20.6%), 부유(17.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 사람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60.4%의 다수의 어린이들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남북한 대표자들이 만나서 통일문제를 협의할 회담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통일문제에 제주도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지난 몇 년동안 제주도에 여러 각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5.9%의 어린이들은 통일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3.7%는 제주도를 강력한 군사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의식(미래관)

동서독 통일에 대한 의식에서는 80.2%의 어린이들이 독일통일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인식에서는 66.1%의 어린이들이 통일후유증으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사회심리적 갈등을 꼽고 있는데 이는 통일후유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의 통일이후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생활수준별로는 통일후유증으로 '사회심리적 갈등'을 꼽는 응답율은 부유(71.7%), 중간(65.4%), 가난(55.8%)의 순으로 나타나고, 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꼽는 응답율은 역순인 가난(25.0%), 중간(19.6%), 부유(13.5%)순을 보이고 있다.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로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70.3%의 어린이가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하고 있으나 20.5%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통일후 남북한간 화합의 걸림돌로는 언어의 차이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 이념과 체제로 통일되었을 경우 북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에서는 “그 동안의 공산주의적 생활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4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남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에서는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52.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북한 어린이와 같은 반이 된다면 65.5%의 어린이들이 북한 어린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68.6%의 어린이들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나 부자들과 기업들이 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낼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22.2%가 되고 있다. 통일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통일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67.4%의 어린이들이 “통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은 단기간 동안에 그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므로 마땅히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6)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한 인식

통일 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도와 흥미도를 조사해 보고 향후 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질문들로 평소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84.2%라는 절대 다수의 어린이들이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95.0%의 어린이들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뉴스나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보원은 “텔레비전, 라디오”(69.7%), “학교 선생님”(18.3%), “신문”(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시사적인 정보와 관련한 교육은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도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으나 관심은 별로 없다”(50.1%)가 제일 많이 응답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는 교사의 수업내용 및 진행방법과 관련이 깊고, ‘관심’은 어린이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평소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사의 수업진행 방법적 측면에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또 다수의 어린이들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학교에는 매우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다.

2.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1) 민족공동체 의식의 약화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은 분단상태의 지속시간이 더 지날수록 한겨레라는 의식은 낮아지고 있다. ‘남북한은 한겨레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어린이가 긍정적(66.5%)이지만 5년전 73.1%에 비해 낮아졌고,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은 10%이상 낮아졌다. 또한 북한 어린이를 만났을때의 태도도 같은 동포이기 때

문에 친구처럼 대해주겠다는 응답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47.1%)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응답도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분단상태가 길어질수록 민족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관념적인 차원에서 통일문제 인식

통일은 명분의 세계에서만 민족적 염원이요 과제로 강조될 뿐이지 실제로 어린이들의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남북분단의 원인을 김일성과 국제정치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도 한민족이기때문 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해서라는 의식이 많다는 것은 통일자체가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조건에서 그 당위성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의 시기를 멀리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미래세대를 통일의 주역으로 봄으로써 통일을 먼 장래의 초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의 방법에서도 북한의 조기붕괴론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개혁·개방론이 점차 현실적 인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3) 통일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합리주의적 경향

어린이들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급진적인 통일논의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절대 다수의 어린이들이 통일의 시기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더 많이 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통일국가의 체제이념으로써는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자유민주주의체제'(70.3%)를 더 선호함으로써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치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내 초등학생들은 기존의 체제내에서 안정된 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온건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국가 안보의식의 약화

전쟁발발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정확한 자기 태도를 밝힌 어린이는 28.1%에 불과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겠다'(31.2%), '모르겠다'(15.3%)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다'(13.2%), '부모님을 졸라 피난을 가자고 하겠다'(12.2%)는 응답도 꽤 나왔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에도 통일노력은 해야한다고 65.3%의 어린이가 응답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도와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4.9%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5)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84.2%) 평소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화를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보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또는 신문등 매스컴을 통해서 얻는다가 74%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어린이는 18.3%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에서 50.1%가 흥미는 느끼고 있으나 관심이 별로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사의 수업진행 방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수의 어린이들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학교에 매우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3. 제 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의 실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선동적인 구호나 맹목적인 열정이나 혹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상상력, 탐구력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수업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자료들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윤리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공동체는 한 민족이라는 자아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규범체계가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이라 하겠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회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의 창조적인 변형을 기약하려는 것이므로 민족공동체가 요구하는 행위 규범들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북한의 학생들을 적대감이 아닌 우정과 신뢰로 대하며, 그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원칙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윤리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회적 환경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일관된 작업으로 연속성이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을 학교교육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더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고 합리적인 상호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국가에 대한 확신과 미래상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복고주의적인 통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에서 한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평화란 사랑과 인도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 조화를 위한 열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냉전 시대를 체험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적색 공포증을 통일 후계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성찰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전통적 교육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반공교육이나 안보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북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각종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형성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 하는 한편 동질성을 확인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기대한 바의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통일과 관련된 단체들이 학교와 연계체제를 형성하여 통일교육의 지원과 관리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민병철(1992). 『신통일론』. 고려원
- 박찬영(1980). 『기로부터 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박영사
- 김종서(1986). 『남북의 생활상』. 배영사
- 김학준 외(1986).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 교육부(1996). 『교사용 지도서(도덕과)』.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정책자문회의
- 김국신외(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한울 아카데미
- 문용진(1988).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송자 외(1986).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오등
- 김경웅(1995). 『북한체제 사회화론』. 박영사
- 통일원(1994).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원
- 한국교육개발원(1993). 『독일교육 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4). 『내가 받은 북한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고성준(1992).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대왕사
- 김 욱 외(1996).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미래 인력 연구 센터.
- 유석렬(1994).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 이돈희 외(1996).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 이장호(1994).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중앙적성출판사.
- 양호민 외(1994).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출판
- 이기원 외(1995). 『통일 대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만길(1997). 『통일 시대 북한 교육론』. 교육과학사.
- 신현정(1991). 『북한의 통일 정책』. 을유문화사.
- 윤덕희·김도태(1992). 『남북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 통일 연구원.
- 역사문제연구소(1995). 『분단 50년과 통일 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 이종석(1995).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논문 및 기타>

- 윤건영(1995), "통일교육의 교수학습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95 북한 및 통일 연수 논문집(Ⅳ) : 통일환경 및 통일 교육 분야』, 고려원
- 강무섭(1995), "통일대비 청소년 의식 및 가치관 확립의 문제", 『통일논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박성희·박정선(1993),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제 13호, 한국 청소년 개발원
- 김 회(1993),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학준(1997),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아시아-태평양의 장래", 『아시아 도서관 협력 : 관광과 문화교류』,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
- 고성준·강근형(1998),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8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 송영대(1997),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통일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97재외동포 초청세미나 자료, 평화문제 연구소
- 전 용(1997), "북한의 권력변동과 통일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총서3, 도서출판 오름
- 이영선(1997), "통일준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3, 도서출판 오름
- 김유승(1996), "세계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방안 연구", 대학생통일 논문집, 통일원
- 이경희(1996),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 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96북한 및통일연구 논문집(Ⅱ) : 통일 교육 및 통일 대비 분야』, 통일원
- 강병준(1989), "제주도 국민윤리 교사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도순(1995), "난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교육방안" 『통일논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강무섭(1995), "통일대비 청소년 의식 및 가치관 확립 문제" 『통일논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항원·강근형(1995),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 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1996), "중고생의 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화통일정책
포럼 자료집
- 김영수(1996),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 한국정치학회 '96하계학술대회('96.6.27~6.29)
- 김주성(1994),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94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 제 5권, 통일원
- 통일원 통일정책실(1996), 『통일백서』
- 중앙교육심의회 이념분과 위원회(1992), 『국·중·고교의 통일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교육심의회 이념분과 위원회
- 임춘웅(1996), "북한 붕괴 시나리오들", 중앙일보(1996.12.13)
- 김학준(1996), "북한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교육월보』 10월호, 교육부.
- 남북문제연구소(1994),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 남북문제연구소.
- 노석구(1995), "남북한 초·중등 과학교과서의 화학내용 비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민족통일연구원(1995),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 여론 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 (1992), 『남북한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1994), 『통일 이후 국민 통합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박용현(1980), "북한의 정치교화 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 학보』 4집, 북한연구소
- 서재진(1996), "북한 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 한국교육개발원 제 2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자료집.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이우영(1995),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1993), "북한 정치 사회화에서 전통 문화의 역할", 민족통일교육연구원.
- 이장호(1997), "남북한 주민의 의식 구조 격차와 통일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제
3회 통일 교육 포럼 자료
- 조주연 외(1995),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모형 개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최석진 외(1996), 『남북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
육개발원
- 최운실 외(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1996),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문용린 외(1995). "남북통일 대비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위원회.
- 양영식(1995). "남북한의 통일 정책". 『민주통일론』. 통일연구원
- 이순교(1995). "학교 통일 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 『동아 연구』 제 29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한만길(1994). "학교 통일 교육의 사회학적 접근 모색". 『통일 문제 연구』 제 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 (1996).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주최. 제 2회 통일교육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Abstract>

A Survey of the Reunificational Consciousness of the Primary Schoolers in Cheju

Kwang-hee Lee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his stud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eunificational education, starts with the purpose of grasping 'the sources of the problem' concretely by examining carefully the reunificational consciousness of primary-school children as the subjects of education for reunification. In spite of the agreement to the concern that the primary-school children's reunificational consciousness is weakening, there still remains the necessity of grasping 'the source of the problem' by carefully analyzing "in what respect and why their reunificaitonal consciousness is weakening?" To get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we gave the questionnaire to the primary-school children in Cheju island.

In summary, the 'source of the problem' extracted from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s. First, the weakening of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community, second, the recognition of the reunification problem in the view of ideology, third, the national trend of the object and process of reunification, fourth, the weakening of the s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fifth, the necessity of new reunificational education in school. Therefore, to make the primary-school children have the right consiousness of reunification and carry out the role and function given to them as the generation that will inherit the reunification, above all, they have to get the education helpful to their formation of the right view of reunification. Second, they have to get the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helpful to their formation of ethical sense of national community. Third, school education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education. Fourth, they should be given the education that carries a conviction of reunified state and projects the image of the future. Fifth, the education should develop the positive consciousness of peace. Sixth, They should be given the education that removes the prejudice and fixed idea. Seventh, The education should foster the quality as a democratic citizen.

For us, reunification is a long course and future problem. The problem of reunification as a future one should be greater concern to the growing children. Therefore, it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that the education should foster the children's ability to think of and settle the reunification problem rationally. As for a researcher, it will be a greater honor for me if this thesis is helpful to the educators of reunificational education.



[부록]

질문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내일의 통일역군이 될 어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해 보기 위하여 꾸며진 것입니다. 이 조사는 시험이 아니며, 각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이 광 회



※ 해당번호의 ()안에 ○표 하세요

1. 여러분의 성별은? 1) 여 자() 2) 남 자()
2. 여러분이 사는 곳은?
1) 제주시() 2) 서귀포시() 3) 북제주군() 4) 남제주군()
3. 여러분의 가정 형편은?
1) 매우 부유한 편() 2) 부유한 편() 3) 중 간()
4) 가난한 편() 5) 매우 가난한 편()

4. 여러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까?
 1)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2) 어쩌다 간혹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3)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5.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이나 북한에 관한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보는 편입니까?
 1) 자주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도 본다()
 2) 가끔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다()
 3) 전혀 뉴스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6. 여러분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1) 학교 선생님() 2) 가족, 친지() 3) 텔레비전, 라디오()
 4) 신문() 5) 어린이 신문 또는 잡지() 6) 기타()
7. 여러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매우 흥미 있고 관심이 높아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다()
 2) 매우 흥미를 느끼고는 있으나 관심은 별로 없다()
 3) 관심은 높은 편이나 수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4)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8.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텔레비전, 비디오, 영화필름, 그림 화보 등)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단히 많다() 2) 많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조금 있다() 5) 거의 없다()
9. '남북한은 모두 한겨레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당연히 한겨레이다()
 2)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0. 요즘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와 주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1) 같은 한 겨레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 2) 우리도 도와 주어야 하지만 UN 및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 3) 우리는 도움 필요가 없고 UN 및 선진국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 4) 우리도 선진국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

11. 여러분이 우연히 북한 어린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 1) 같은 겨레 같은 동포이므로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하겠다()
- 2)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 3)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 4) 공산주의 국가 어린이임으로 경계하겠다()
- 5) 처음부터 만나기를 거부하고 피하겠다()

12.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 1) 미 국()
- 2) 북 한()
- 3)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 4)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

13.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누구를 응원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우리나라()
- 2) 중 국()
- 3) 둘다 똑 같이 응원할 것이다()
- 4) 둘 다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 5) 겉으로는 중국을 응원하나 속으로는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

14.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한국 지도자의 책임()
- 2) 민족내부의 분열()
- 3) 일본의 지배()
- 4) 미국·소련의 욕심()
- 5)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15. “통일”하면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산이 있다면 모두 고르세요.

- 1) 한라산()
- 2) 설악산()
- 3) 백두산()
- 4) 장백산()
- 5) 태백산()
- 6) 지리산()
- 7) 금강산()
- 8) 묘향산()

16.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1)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 2) 통일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3) 통일은 되어도 안되어도 좋다()
- 4) 통일을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
- 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 2) 같은 겨례이고 같은 동포이므로()
- 3)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 4) 한민족 우리 겨례가 더 풍요로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

18. 여러분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1)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 2)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조금 어려울 것이다()
- 4)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19.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 2) 북한 동포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 3)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을 원치 않아서()
- 4)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자기 욕심 때문에()
- 5) 남북한이 서로 믿지않고 자기네 체제가 더 좋다고 주장해서()
- 6)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우리의 통일을 반대해서()
- 7)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서()

20. 여러분은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니까?

- 1) 북한의 갑작스런 멸망에 의한 남한으로 흡수되는 통일()
- 2)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는 통일()
- 3) 북한 주도의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
- 4) 남한 주도에 의한 대화와 타협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

21. 여러분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
- 2) 북한의 개혁·개방()
- 3)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힘 기르기()
- 4) 주변국에 대한 외교()
- 5) 남한사회의 풍요로운 삶 가꾸기()

22. 여러분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남한 사람들()
- 2) 북한 사람들()
- 3) 남·북한 사람 모두()
- 4) 남한 지도자()
- 5) 북한 지도자()
- 6)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

23. “북한!”하면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두가지만 골라 보세요.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 1) 김일성·김정일()
- 2) 백두산()
- 3)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
- 4) 한겨레()
- 5) 공산당()
- 6) 인민군대()
- 7) 핵무기()
- 8) 어색한 말투()
- 9) 간첩()
- 10) 기타()

24. 우리 나라(남한)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공식이름은 무엇입니까?

-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2)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 3) 조선 인민 공화국()
- 4) 잘 모르겠다

25. 여러분이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 1) 북한 주민들의 생활()
- 2)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 3) 김정일 및 정치가들의 생활()
- 4)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

- 5) 북한의 백두산·금강산을 비롯한 관광명소들()
 6) 기타()
26. 우리 나라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1)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
 2)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
 3) 최근의 경제상황이 안좋아서 그렇지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살 것이다()
 4) 최근 우리 기업이 무너지고 외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오는 것으로 보아북한이 더 잘 살 것이다()
 5) 북한 주민 스스로 지상낙원이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이 우리보다 아주 잘 살 것이다()
27.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2)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제체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3) 가뭄을 비롯한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서()
 4) 북한주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5)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주지 않고 고립을 시켜서()
28.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 김일성과 공산당원들() 2) 김정일과 공산당원들()
 3) 행정관료들과 기술자들() 4) 북한 주민들 모두()
 5) 북한의 인민군대()
29.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잠수함 및 간첩을 침투시키는 등 계속해서 군사적인 무력도발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1)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아서()
 2)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여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3)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하기 때문에()
 4) 주변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유지를 계속하기 위하여()

30.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들과 통일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 1) 통일을 위한 대화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2)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3) 무력도발을 일삼는 자들은 북한공산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하나, 선량한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요 통일의 대상이기에 통일노력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 4) 북한이 무력도발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통일대화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31. 만약 북한이 무력침략을 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1)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겠다()
 - 2) 부모님을 잘라 피난 가자고 하겠다()
 - 3) 제주도나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다()
 - 4) 이러한 상황일수록 평소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
 - 5) 모르겠다()
32. 여러분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 2) 독일이 부럽다()
 - 3) 독일 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 졌다()
 - 4) 어찌다 보니 통일이 되었다()
 - 5) 통일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3. 동서독이 통일되고 얼마동안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들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길드려진 생활습관과 가치관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 2) 엄청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 3) 공산체제에서 살던 동독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 4) 서독사람들의 동독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태도()
- 5)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
34. 만약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로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현재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
- 2) 북한식의 공산주의 국가()
- 3)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결합한 국가()
35. 만약 통일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화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언어의 차이()
- 2) 우리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차이()
- 3)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싸움()
- 4)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통일비용의 문제()
- 5) 일상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차이()
36. 만약 통일이 우리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1)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 그동안의 공산주의적 생활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 3) 우리가 북한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적응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 4)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결국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통일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37. 만약 우리의 주도로 통일되었을 때 남한사람들은 통일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1) 북한동포들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의지하려 하고 남한에 와서 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 북한사람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 3)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을 기피하고 업신여기려 할 것이다()
38. 통일이후에 여러분이 북한 어린이들과 같은 반이 되어 학교에 다닌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겠습니까?
- 1) 같은 반 친구이므로 잘 대해주고 친하게 지내겠다()
 - 2) 그 때 가 봐야 알겠다()
 - 3) 당분간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4) 서로가 불편하게 되고 친구로 사귄 수가 없을 것이다()
39.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여러분은 기꺼이 통일비용을 낼 수 있습니까?
- 1) 기꺼이 내겠다()
 - 2) 부자들과 기업들이 내야 한다()
 - 3) 부자들은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조금씩이라도 내야 한다()
 - 4) 가난한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다()
 - 5) 모든 것을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한다()
40. 만약 통일이 될 경우에 단기간 동안은 가치관의 차이, 엄청난 양의 통일비용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통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될 것이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2) 통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은 단기간 동안에 그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살기 좋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므로 마땅히 통일해야 한다()
 - 3)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41. 통일된 한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 2) 한 겨레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 3)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지향하는 세계시민 의식()
 - 4) 위 세가지 모두()

42.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시합장소로 한 곳을 북한에 배정할 수 있다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정몽준 회장의 견해가 좋다고 생각하며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2) 시합장소를 남한과 똑같이 나누어 하고, 할 수 있다면 남북공동 축구대표팀을 만들어 2002년 월드컵에 출전했으면 좋겠다. ()
 - 3) 정몽준 회장의 견해에 반대하며 통일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 4)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월드컵 개최권을 아무 보탬도 안주었던 북한에게 한겨레라는 것 때문에 나누어 줄 수는 없다()
 - 5) 잘 모르겠다()
43. 최근 우리 나라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외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데도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고 통일노력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1)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 2)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중단해야 하나, 통일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3)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북한동포들과 고통을 같이하면서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4) 잘 모르겠다()
44. 제주도와 제주사람들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북한 및 휴전선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
 - 2)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남·북한 대표자들이 만나서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 3) 혹시라도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제주도를 최첨단 군사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 4) 잘 모르겠다()
45. 만약 여러분이 통일과 관련하여 글짓기를 한다면 다음 중 어느 주제로 글을 쓰

겠습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기타()란에 직접 써 주세요.

- 1) 서울에서 평양까지()
- 2) 한라에서 백두까지()
- 3) 우리의 소원은 통일()
- 4)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 5) 기타()

♣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